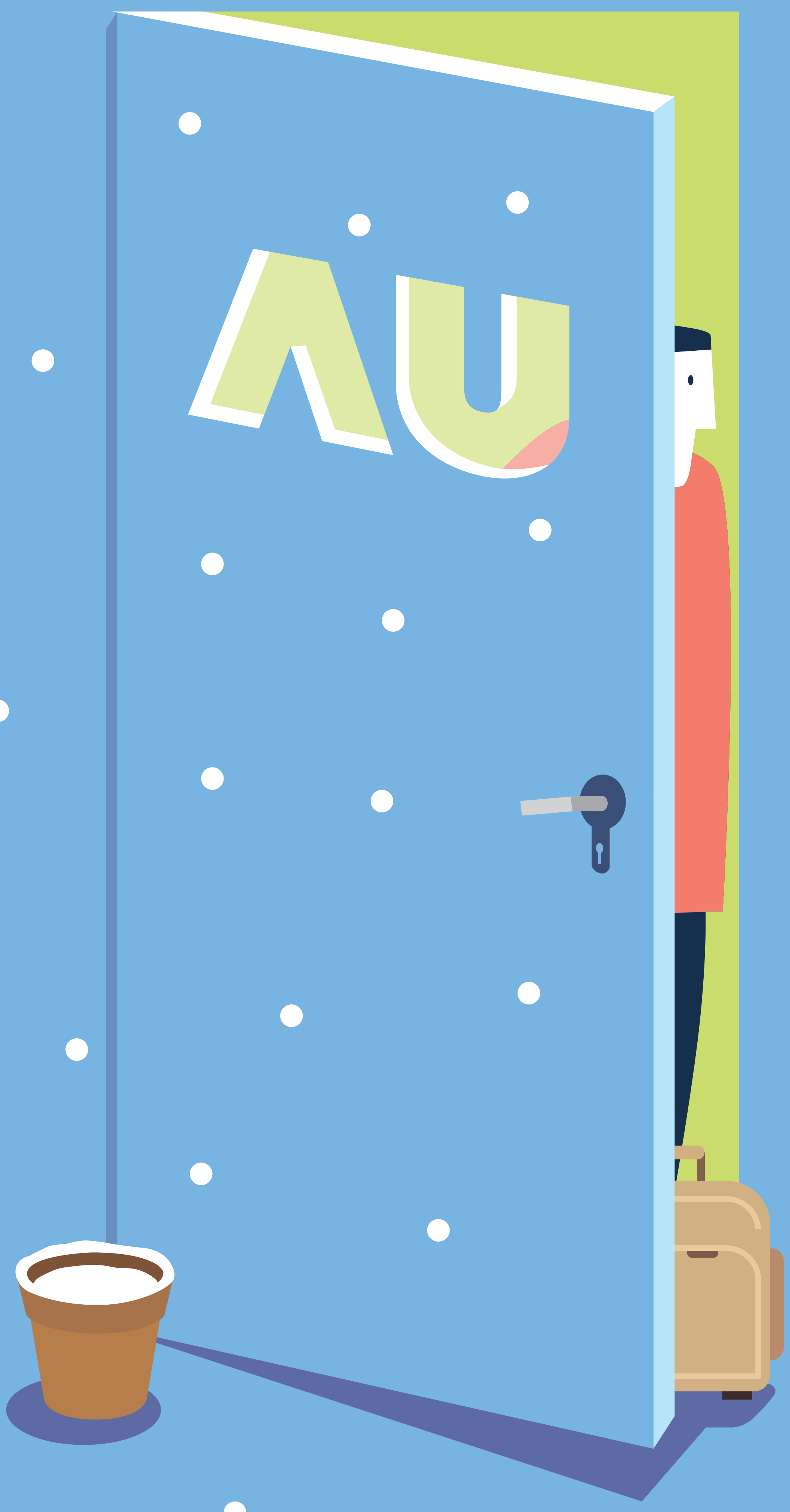
AJOUINSIGHT

봄여름가을겨울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6 12 01 02 RENEWAL Vol. 6
〈아주인사이트〉 2016(4349) 겨울호 통권18호



내 마음으로
가는 여행

아주대학교

AJOUINSIGHT. 2017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WINTER SPECIAL

내 마음으로 가는 여행

Present_Brand Strategy Dept.

2017

JANUARY

바람이 되어보자, 구름이 되어보자
자신을 돌아보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설날)
29	30	31				

FEBRUARY

일을 안하는 것도
일을 잘 하는 거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MARCH

비우면 비울수록
새 것이 가득하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PRIL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눈은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은 듣고 본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MAY

마음은 가장 결정적일 때
힘을 쓴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석가탄신일)	4	5 (어린이날)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JUNE

눈물 주루룩
가슴 찌르륵
감동의 보따리를 풀어보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현충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JULY

웃으면서 살으려면
울을 줄도 알아야 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31	25	26	27	28	29

AUGUST

놓으면 날듯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EPTEMBER

마음이 넓으면
세상도 넓구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OCTOBER

소소한 취미로
쏠쏠한 행복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개천절)	4 (추석)	5	6	7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VEMBER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라
마음쓰는 동물이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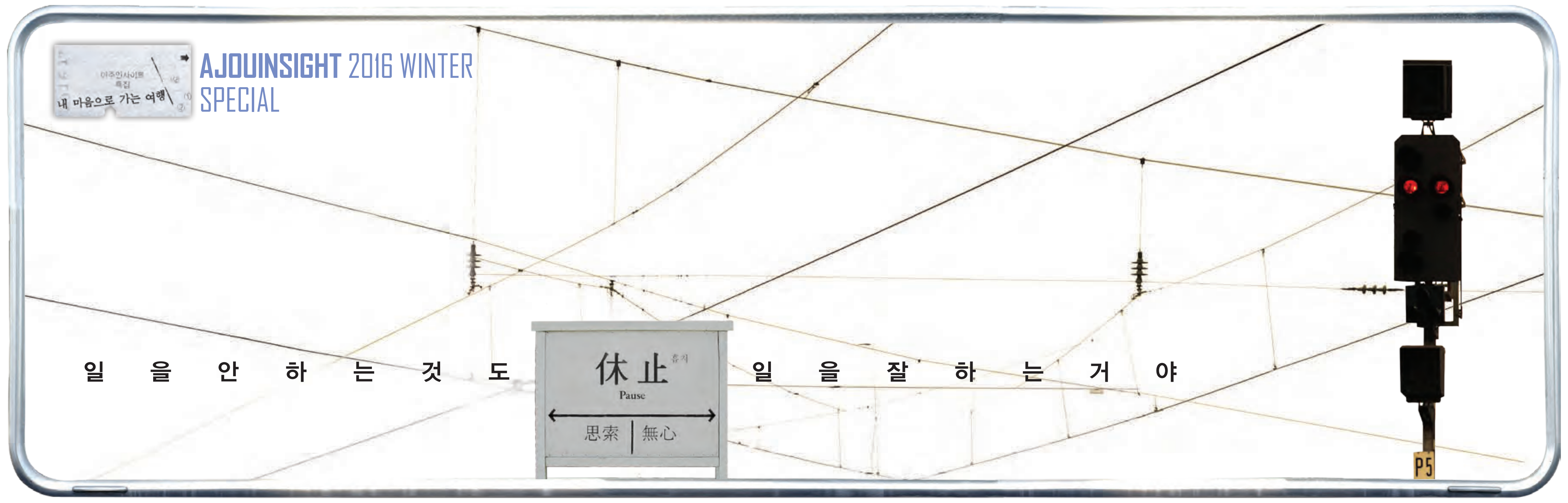
마음이여~ 나누어라, 기대라
세상이여~ 웃어주라, 울어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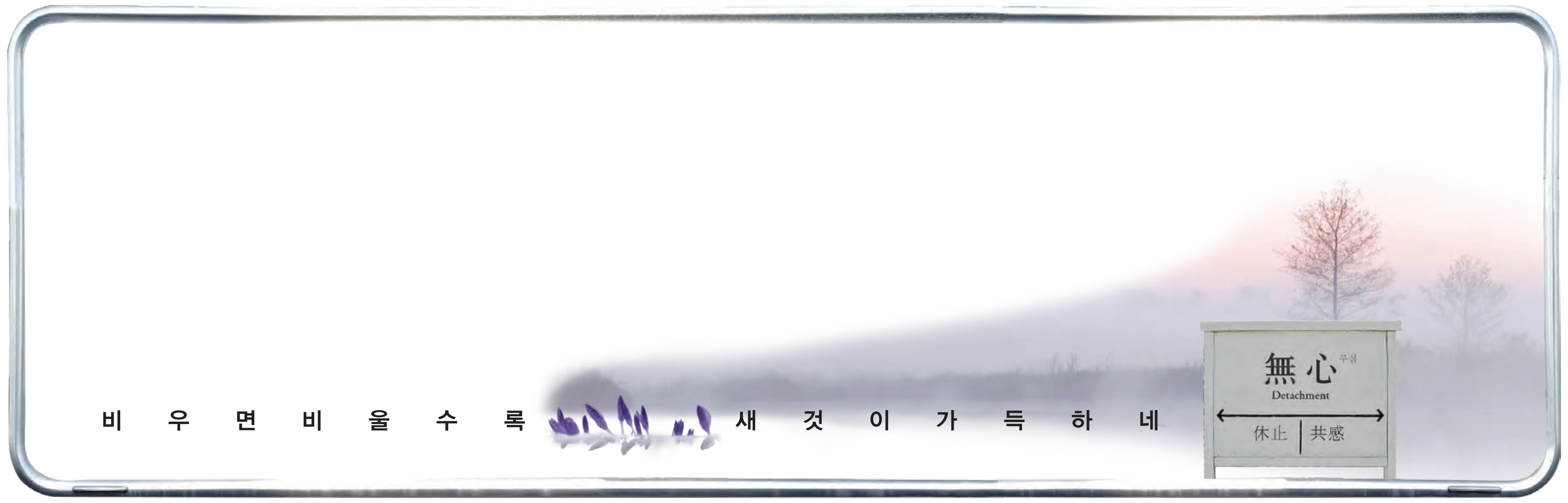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1	25 (성탄절)	26	27	28	29	30

04 특집_기고 조선미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05 특집_기고 鄢葵(언규)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06 특집_기고 정재영 다산학부대학 교수
07 특집_기고 오찬호 작가
08 특집_인터뷰 이명수 심리기획자
10 특집_인터뷰 임락경 시골교회 목사
12 특집 에세이_내 마음을 위한 나의 쉼
김성환 물리학과 교수
이교범 전자공학과 교수
최영화 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교수
김성욱 건축학과 교수
장예빛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하석주 아주대 축구부 감독
오동진 영화평론가
강민석 미디어학과 4학년
16 글로벌인턴십 후기 리포트
18 파란학기제 2nd 파란학기 참가팀 프로젝트 소개
20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박래웅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교수
21 내 정신의 고향에서 배현임 동문 간호학과 03
22 Location Premium 강소기업으로 가자 삼화왕관
23 전공소개 강경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24 글로벌 동문 메시지 김형걸 동문 법학과 91
25 Special Lecture 손석희 언론인
26 연구뉴스
28 News
33 Donation List, Thank Donor

a word of editor

노동적 학업의 빛나는 저마다의 결과로 대학에 들어간다. 때로 훈장 같고, 때로 서낭당 치장 같은 스펙들을 달고 이른 바 '사'자 직이나, 대기업의 '인재'가 되려든다. 그 과정과 결과에 '우쭐'은 있어도, '행복'은 없다는 진단들이다. 아니 '현상'이어서 판사도, 신입도, 수십 수백억 연봉의 CEO도 극단적 선택을 한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한 그룹사에서 뽑아 놓은 인재들과 리더들도 '밝힐 수 없을 만큼의 숫자'가 이 대열에 나서, '마음 잡아주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몇몇 참여 외부인에게 '알려줄 수 없는' 이유로 이내 중단됐단다. Ⓐ 어느 보험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마음들의 마지막 인증처가 돼버린 서울의 한 다리에 캠페인을 벌였다. 유수의 국제광고제에서 꽤 많은 상을 거머쥐었다지만, 주춤하던 대열의 숫자는 좀체 줄지 않더니 다시 늘었다. 이 캠페인의 '홍보 활동' 성공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리기 좋은 곳이다 여겼을지 모르겠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센서'였다.Ⓐ이런 '방 안의 코끼리'에는 늘 금기시가 따른다. 한사코 태극기를 올리라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힘을 키우라'는 원론의 딴지를 건다. 이래저래 마음 힘든 시대다. '사람이 본래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는 사전 풀이는 틀려 보인다. 그것이 어째서 '본래 지닌 것'인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 변화를 보자. 생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시각각과 긴 세월 동안의 마음 풍파를 보자. '불변'이 아니고 '반응'이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사물에 대하여 감정,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며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라는 풀이가 마음을 좀 알아준 정의 같다. '상호 작용'인 것이다. 남과 나의, 세계와의 인과에 의한 생각과 감정인 것이다.Ⓐ"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인문 계열)?" "증명된 것만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자연 과학 계열)?" 프랑스 대입 바칼로니아 문제의 예이다. 주어진 몇 개에서 답 찍는 공부를 기계처럼 했고, 해야만 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안쓰럽다. '공부'라는 제도와 상한 '마음'들에 정책을 내고, 최종 결재를 하는 집단들의 '영혼이 비정상'으로 시끄럽다. 마음은커녕 아예 생각이 없는 분이라고 허탈해 한다. "물질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갈파한 칼 세이건이 '내가 이러려고 우주를 공부했나 자괴감'이 들 지경이겠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플라톤 이후의 철학자들의 명제는 '사람은 마음 쓰는 동물이다'로 바뀌어 왔어야 했다. 남경호 Ⓐ





특집 교수 기고

'우울함의 공동체'도 '무기력의 개인'도 함께 벗어나야

뭘 해도 결과 똑같아…의 사회 우울함의 공동체 되기 쉬워

무기력 학습되지 않도록 적극성은 지닌 개인 되어야

"요즘 학생들은 참 안됐어. 취업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대학생 아들을 둔 친구를 만났더니 대뜸 취업난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취업은 100% 됐잖아."

"그렇지... 그랬나?"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다 보니 예전 일이 떠올랐다. 친구 말은 맞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나는 취업 원서를 하나도 내지 못했다. 화학을 전공하고 갈 만한 회사에서 여학생에게는 원서 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서조차 안 주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하는 내게 여직원은 귀찮다는 듯 원서는 줄 테니까 받아가라고 했다.

경영학과를 졸업한 남자친구는 수월하게 취업을 했다. 당시 경영학과는 취업 1순위였다. 당시 경영학과에는 여학생이 두세 명 있었는데 그들도 제대로 취업하지 못했다. 같은 80년대를 살면서 친구와 나의 삶은 그렇게 달랐다. 요즘처럼 인터넷에 구인모집이 나던 시대가 아니어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려면 하루 한 번 배달되는 신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구인란에는 "숙식제공, 고액 월수 보장"이라는 문구로 사람을 끄는 유흥업소가 대부분이었다. 그 시간을 어찌 어찌 보내고, 급여는 없지만 일 년 공부하면 자격증을 주는 대학병원 검사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곳에 가면 당시 공부를 함께 했던 동기들이 아직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일이 지루했다. 일 년을 참고 자격을 따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평생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했다. 결국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했고, 세 번째 선택은 직업이 되었다.

그 때 나는 어떤 생각으로 그 시간을 견뎠을까.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느낌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단, 희망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를 탓하지도, 세상을 탓하지도 않았다. '남자로 태어날 걸' 하는 생각도 안한 걸 보면 딱히 무슨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고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견디며 보냈던 것 같다.

심리학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유기체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그 결과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을 학습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두 집단의 개를 사용한 실험에서 도출되었다.

미국 심리학회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셀리그만은 두 집단의 개를 가죽 끈으로 묶어 강한 전기충격을 주었다. 한 집단의 개들은 코 부근에 장치된 관자를 밀어냄으로써 충격이 시작될 때마다 전기충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반면 다른 집단에 있는 개들에게는 그런 장치가 없었다.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두 집단에 시행된 전기충격의 횟수와 정도는 모두 동일했다.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집단의 개가 관자를 밀어내면 다른 집단의 개에게도 충격이 중단되었다. 두 집단은 오직 충격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만이 달랐다.

이런 시행이 반복된 뒤 개들은 다른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양분된 상자의 한 쪽에 있다가 충격이 시작될 때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전기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회피 가능한 충격을 받았던 집단은 충격이 시작되지 마자 장애물을 뛰어넘었으나 회피가 불가능했던 집단은 훨씬 수동적이 되어 충격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현상을 관찰한 셀리그만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개들의 행동이 무기력을 학습한 결과라고 하였다. 어떤 행동을 해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고 예측하게 되면 유기체는 무기력 자체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여대생의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공계열이 더하기는 했지만 문과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도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기력을 학습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좌절이 반복되어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A라는 회사가 입사를 거절하면 A에 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만 했던 것이다. B사가 거절하면 B사는 여자를 뽑지 않는구나 했을 뿐 더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힘들다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 무기력에 대한 학습을 막아주었던 것 같다.

취업도 힘들고, 세상 살기도 힘들다고 한다. 누구나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누구나 비관적인 말을 한다고 그 말로 내 미래를 예측한다면 무기력을 학습할 뿐이다. 무기력은 우울감을 불러온다.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이 유명해진 이유는 우울증을 설명하는 좋은 설명이기 때문이다.

살기 힘들다거나 옛날이 훨씬 좋았다는 이야기는 개인의 역사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배우자를 믿을 수 없어 힘들다고 하기도 한다. 수입은 좋지만 상사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특별한 우환은 없는데 그냥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걸 뭉뚱그려 '힘들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것으로만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지는 말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살아보기도 전에, 무수하게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람처럼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다.

조선미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특집 교수 기고

마음의 소리 들으며 천천히, 차곡차곡

욕심 버려야 목표 바르게 서고 마음 평온해야 큰 꿈도 이뤄

해야 할 일 하고 좋아하는 일 하나하나씩 그게 쌓이는 게 꿈

십 년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계산해보니 벌써 십 년이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 세월을 감탄할 때 중국 사람들은 "손가락을 한 번 튕길 사이(彈指一揮間)"라고 표현한다. 이방인으로서 한국에서 십 년 동안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그러나 바쁜 일상 탓에 과거를 되돌아볼 틈이 없었다. 이 글을 쓰면서 나의 기억 상자를 열어 과거의 '나'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

又是一年櫻花雨,	또 다시 일 년 흩날리는 벚꽃 잎,
多少記憶葬心底.	아련한 기억들 심저(마음 속 깊은 곳)에 묻었네.
春風攬月拂面過,	봄바람 뜬구름 얼굴을 스치니,
悲歡冷暖四月天.	만감이 뒤섞인 사월의 밤하늘.

-자작시 <무제(無題)> 2012.04.12-

우연 그리고 운명

왜 한국에 왔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늘 우연이라고 한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나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서 문화콘텐츠를 배워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고민 끝에 한국 행을 택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보기 위해서였다. 원대한 포부와 깊은 뜻은 없었다. 그때는 23살이었고, 아무것도 몰라서 용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언어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나는 깨달았다. 이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하고 낯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려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을. 처음 일 년 동안은 낮에는 도서관에서 전공 서적 및 논문을 읽고, 밤에는 집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수업 이외에는 한국인 선배와 동기들을 따라 다양한 학술활동에 참여했다. 공부하다 보니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박사까지 하게 되었다. 시작은 우연이지만 결과는 운명인 것 같다.

마음가짐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나도 동의한다. 멀리 가고 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제갈공명의 <계자서(戒子書)>에 "비담박무이명지 비녕정무이치원(非淡泊無以明志, 非寧靜無以致遠)"이라는 구절이 있다. 해석하자면 담담하게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원대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다.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그러나 욕심이 많으면 헤매다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 나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세상은 넓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다. 다 해야 한다는 욕심과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나니 그제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전진의 동력

학문의 바다는 끝이 없어 외로움과 괴로움을 배로 삼아 건너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방인에게 학문의 바다 건너기는 더 힘겨운 일이다. 때로 지치고 때로 좌절하고 때로 흔들리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준 존재가 있다.

가족: 나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부모님의 손길을 많이 못 받아서인지 가족의 의미를 잘 몰랐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내가 아이라는 것도, 내 모든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란 것을. 나에게 집은 몸과 마음의 쉼터이고 재충전하는 장소이다.

스승: 스승은 망망한 학문의 바다 위에서 멀리 보이는 등대와 같다. 따뜻한 빛을 검은 바다 위에 비추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덕분에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선후배가 생겨 '우리'가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희망과 꿈을 품고서 고독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

친구: 친구는 나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다. 나의 크고 작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 나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해주며 필요할 때 아낌없이 도움을 준다.

동료: 아주대는 첫 직장이다. 인문대 교수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가 있어서 안정된 마음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느낌이다.

학생: <예기(禮記)>에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구절이 있다. 학생을 가르치면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뜻이다. 부족하고 서툰 내가 학생들한테 더 많이 배운 것 같다.

나의 꿈

학생들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종종 물어본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나는 늘 고민에 빠진다. 내 꿈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나는 꿈이란 게 없었다. 늘 해야 하는 일만 해왔고 정해진 틀에서 움직였으니까. 좋아하는 일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찾고 있다. 좋아하는 일이 하나 둘 모이면 내 꿈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해바라기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다. 어두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의 빛이 되어주고 싶고, 추운 날에 누군가에게 따사로운 햇살이 되어주고 싶다.

* 이 글은 필자가 한국어로 직접 썼음을 밝힙니다.

鄭葵(언규)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특집 교수 기고

인간 본성 깨닫는 마음을

배움이 즐거움이고 곧 쉼이 되는 꿈

'아주 위대한 고전'으로 가치 향유하는 삶을

풍경 1: 학교인가, 아니면 쉼터인가? 문 안에 들어서니 꿈 속에서나 만날 법한 인물들로 방안이 가득하다. 아하! 몇 명은 알겠다. 옆구리에 <티마이오스>를 끼고 하늘을 가리키는 이는 플라톤, 그 옆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들고 걸어오고 있는 이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다. 아리송하기는 하지만, 옆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보이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매력적인 여성 수학자 히파티아로 짐작되는 인물도 보인다. 이 풍경이 무엇을 담은 것인지 눈 밝은 여러분은 당장 눈치챘을 것이다. 그렇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다. 라파엘로가 초빙한 당대 최고의 스승들이 모인 학교이면서 대화와 향연의 쉼터이기도 하다. 배움터와 쉼터는 본디 '스콜레'라는 같은 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가? 혹시 라파엘로는 배움이 유희이고, 배움이 쉼이 되는 곳을 꿈꾼 것이 아닐까? 아테네 학당 인물의 숫자를 헤아려본다. 모두 58명. 고전의 재생을 꿈꾼 이 르네상스 화가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을까? 한 가지 단서가 있기는 하다. 모임의 성격은 그림의 제목에서 드러난다. 이 그림의 원제는 <Causarum Cognitio>다. 직역하면 '앎의 최종목적' 좀 부드럽게 의역하면 '근원적 앎'쯤 될까? 영어로는 'Seek Knowledge of Causes'라고 번역되는 것이 보통이다. 말하자면 <아테네 학당>은 우리의 삶과 앎에서 가장 근원적 물음을 제기한 인물들을 한 자리에 초대한 셈이다. 그런데 하필 왜 58명일까? 생뚱 맞은 생각이지만, 벽면의 크기를 고려한 게 아닐까? 어떤 모임에도 장소에 따른 적정 규모와 인원은 있는 법이니까. 이 엉뚱한 생각은 고전으로 배움과 쉼의 향연을 꿈꾸는 내 입장에서는 절실한 구석이 있다. 아주대에는 현재 102편의 고전 모듈이 있다. '아주 위대한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고전 모듈들은 우리의 삶과 앎에 가장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한 위대한 책들로, 아주대 공동체에서 선정한 책들이다. 이 중 10편의 고전을 묶어서 매년 고전 브라운 백 강연(Brown Bag Lectures: 갈색 재생봉투에 담긴 도시락을 먹으며 진행되는 강연)을 열고, 이 10편의 고전을 대상으로 가을에 '아주 위대한 고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문제는 선정한 책이 102권인데, 강연 초대 자리는 10권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첫 선을 보인 이후 브라운 백 강연은 5년째 아주대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도 초대받은 고전보다는 초대할 고전이 더 많다. 첫 해에는 10편이 아니라 8편을 소개했기 때문에 2016년 12월 현재 48편이 소개되었고 내년이 되면 공교롭게도 58편으로 아테네 학당에 등장하는 고전 인물과 같은 숫자가 된다. 아테네 학당의 주제가 '근원적 앎'이라면, 아주대 학당의 주제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었다. 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이 되는 해인 2014년에는 '파열(rupture)을 넘어서', 인성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부각되었던 2015년에는 '인간 본성을 바라보는 10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올해의 제목은? '풍선토론으로 선정한 아주인이 읽고 싶은 이 열 권의 고전'이었다. 그런데, 풍선토론이라니?

풍경 2: 열기구 풍선이 떴다. 탑승한 사람은 모두 15명. 이들의 면면은 아테네 학당의 못지 않게 쟁쟁하다. 탑승객 목록을 보니 이렇다. 테레사 수녀, 마오쩌뚱, 마하트마 간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넬슨 만델라, 미카엘 고르바초프, 찰스 다윈, 윌리엄 셰익스피어, 디에고 마라도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 에이브러햄 링컨, 베토벤, 빈센트 반 고흐, 제인 오스틴. 굳이 설명을 달지 않아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거물들이다. 그런데 이런! 날벼락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풍선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다. 15명 탑승객 중에서 7명을 남기고 8명은 풍선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추락한다. 자! 어쩔 수 없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누구를 풍선 안에 남기고, 밖으로 내보낼 것인가? 풍경은 자못 절박하다. 마치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리얼리티 쇼 같다. 풍선토론이 처음 선보인 것은 1996년 4월 THES라는 영국의 권위지 <더 타임즈>의 고등교육부록에서다. THES는 해마다 전세계 대학랭킹을 발표해서 대학가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도대체 극한 상황을 설정하고 누군가를 반드시 풍선 밖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이 잔인한 게임설정은 무엇을 겨냥한 것인가? 뜻밖에도 이 게임은 초등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의 장까지 모두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주는 토론 방식으로 많은 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고, 의사소통의 힘을 키우고, 팀워크를 배양하고, 설득하는 기술을 익히고, 시간조절 능력 등을 키우는 종합 학습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이 초등교육에서 환영 받는 이유라고 한다면 대학에서는 합의를 도출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창의력을 배양하고 자신의 주장을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논리적으로 펼치는 좋은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 풍선토론에는 정형화된 답안이 없다. 그러나 풍선토론의 과정에서 나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드러난다.

2016년 봄, 다른 해 같으면 고전 브라운 백 강연이 시작해야 할 그 시간에 아주대 성호관은 학생들의 발길로 분주했다. 2016년 강연에 탑승시킬 10권의 고전을 선정하기 위한 풍선토론 때문이었다. 첫 토론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토론자도 청중도 많이 어설펐고 우왕좌왕했다. 그러나 내 손으로 강연을 선정했기 때문인지,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2016년 고전 브라운 백 강연은 예년에 비해 참가자도 많았고, 관심도 높은 편이었다.

고전읽기는 쉽지 않다. 인간 누구나 직면하는 보편 난제에 대해서 고전적 지위에 오른 책의 저자들은 정형화된 답을 결코 제공하지 않는다. 함께 성찰하자고 요청할 뿐이다. 고전은 그래서 난해하다. 그러나 결정적 장애 요인은 고전이라는 이름이 주는 중압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누구나 찬양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라는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역설적인 고전론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풍선토론은 이 중압감에서 해방되는 하나의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 풍선토론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는 올해 마지막 화요일(12월27일) 정오에 열릴 2017년 고전 브라운 백 강연 풍선토론의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싶다. 한 가지 더 드리는 풍선토론 사용설명서. 풍선토론은 이번 겨울 내가 읽고 싶은 고전 책을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데도 유용하다. 생각보다 재미있다. 긴 겨울 밤, 고전과 놀 수 있는 유익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재영
다산학부대학 교수

특집 외부 기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휴식이란 없다

'억울함 풀겠다'식 한국적 휴식 이젠 바꿔야

타인의 '마음 공감 체력'과 불평등의 '원인 파악 사색' 필요

나와 아내는 최근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목록에 하나를 추가했는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고도의 전문역량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그렇다. 매일 내가 좋은 부모인가 되묻게 하는 새로운 목록은 '잘 쉬는 법'이다.

그냥 쉬고 싶을 때 쉬면 되지, 거창하게 '부모 역할' 운운하느냐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냥 원한다고' 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문제다. '숨'쉬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쉼'을 잘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걸 잘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러다가 자녀들에게 '일만 했던' 아빠로 기억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잠시 했다. 그러나 내가 어찌 기억되는 건 애초에 상관없었으니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더 큰 걱정은 자녀들이 '나처럼' 살아가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늘 쫓기듯이 살아가는 인생을 '성실'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언젠가 '빛'이 있을 거라면서 정작 '자신'을 삶의 변방에 늘 내버려두는 그런 미련한 삶 말이다. 이런 걱정을 할 만큼 나는 잘 쉬지 못한다. 억지로 휴식시간을 가져도 늘 휴식 이전에 했던 일과 휴식 이후에 해야 할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때의 쉼은 쉼이 아니었다. 그러면 재충전이 제대로 될 리 없으니 늘 피곤하고 그러면 또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라는 자괴감에 빠져 술을 찾는다. 이는 술 마시는 처량함을 문화생활로 만회한다면서 드라마 몇 편을 몰아보다가 밤늦게 잠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당연히 다음 날에는 더 피곤하다.

나는 휴식을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의 편안함을 느끼는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휴식이란 행위는 학습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람은 늘 '전진'해야 함을 배웠고, 휴식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만이 달콤한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실제 '평온함'을 느끼는 그런 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내가 나태해 보이지?'라면서 불편함을 느낀다.

내가 부모로부터 배운 이런 모습을 자녀에게는 결코 물려주기 싫은 이유는 휴식을 반납한 삶은 '사람다움'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내 몸 망가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다움이 무엇인가? 여러 정의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시민'인 이상, 오늘보다 내일 이 사회가 좋은 쪽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의무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체력과 불평등이 야기되는 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휴식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휴식은 전자의 물리적 토대를 제공하며, 후자의 직접적 선행요건이다. 정리하면, 쉬지 않고서는 호모 사피엔스처럼 살지 못하고 그런 이들이 모인 사회는 끔찍하다. 곰처럼 우직하게 버텨가며 일하는 걸 미덕으로 여긴 한국사회가 이를 증명한다. 모든 걸 포기한 채 목숨을 걸고 일 할 때에만 성과가 있다고 강요했던 한국은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었는가? '내가 바빠서'라는 말들만 부유하는 곳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존재할 리 없다.

'쉼'이 무엇인지 모르는 내 인생이 한심해서 몇 번씩 시도는 해 보았다. 그런데 다 실패했다. '쉬지 않겠다'는 일상의 강박을 전복시키기 위한 억울해서 못살겠다! 반드시 쉬고야 말테다!는 식의 또 다른 강박은 더 큰 부작용을 야기했다. 그 시행착오를 말하고자 한다. 아주대 구성원들이 이번 겨울방학에 실천해야 할 '휴식연습'의 매뉴얼이었으면 한다.

나는 '쉼'을 지나치게 계획했다. 그러니 원했던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냈다. 이는 좀 더 느긋하게 친구들과 수다 떨어도 될 상황에 '오늘은 일찍 자기로 했다면서' 스스로 더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몸이 좀 안 좋은 날에도 '며칠 동안 이 날만 참고 기다렸다면서' 과식, 과음을 절제하지 않았다. 백만 년 만의 가족여행은 그 슬로건부터가 불안했다. 엄청난 폭설로 기약 없이 공항에 발이 묶이자 '휴가 온' 다른 사람들은 공항에서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면서 '예기치 않았던' 일들도 하나의 추억으로 만들어내던데, 나는 다짜고짜 항공사 관계자에게 항의하기 바빴다. 당연히 내 가족들의 기분까지 엉망이 되었다.

집에서 소소한 쉼을 실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쉬겠다는 결심만큼 나는 예민했다. 가족의 평범한 소음도 제재했고 위층의 일상적 생활소음에도 지나치게 깐깐하게 굴었다. '내'가 휴식한다고 '모두가' 휴식을 하는 게 아닌 건 당연한 것이었는데, 내 목표의식이 강해지니 '타인의 상황'이 수용되지 못했다. 마음을 내려놓은 진정한 쉼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지금부터 휴식한다! 그러니 날 건들지 마라!"는 식의 전투적 휴식은 애초에 쉼이 아니었다.

타인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취미활동을 하면서 쉼을 찾는데, 이 경우도 '억울함'이 전제되어 있을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괴이한 현상이 등장한다. 이런 식의 취미활동은 '쉼=소비'인 경우가 많다. 모든 억울함을 풀어버리겠다는 집착은 한국인들의 이상한 문화, 이를테면 등산장비를 지나치게 구입한다든지, 월급을 다 털어 자전거를 사는 등의 기행으로 이어진다.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개인의 노동이 '휴식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진다. 말 그대로 '허무한 일'을 하는 셈이다.

이처럼 '쉼'은 만만치 않다. 평온한 휴식이란 '억울함의 보상'이 아니다. 이를 제대로 상기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타인을 괴롭힌다. 그래서 '쉼'은 교육의 영역이다. 배워야 하고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한다. 다행히 요즘 이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읽어보면 별 내용도 없어 보이지만, 직접 실천해보면 까다롭기 그지없다. 방학은 이 격차를 줄이는데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자신을, 타인을, 나아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쉬어야 한다.

오찬호
작가, 사회학연구자

특집 인터뷰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마음가는대로 살자 '꼭 한 사람'을 갖자 많이 안고, 안기자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받치고 있는 이여.

비스듬히 정현종
- 이명수가 청년들에게 추천하는 시

이명수 심리기획자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광고기획자로 일했다. 마흔 이후에는 심리기획자로 일하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심리치유센터 <와락>,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치유공간 이웃> 등을 세우고 함께 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치유적 모델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정신과 의사인 아내 정혜신 박사와 함께 '돕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일컫는 돕돕재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저서로는 <그래야 사람이다>, <홀가분>이 있다.

이명수는 '심리기획자'다. 광고 기획자로 일하던 그가 업을 바꾸면서 직접 만든 이름이다. 심리기획자로서 그는 사회적 재난 현장에서 아내인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과 함께 상처 입은 사람들 곁에 있어 왔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가족,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 곁에 이명수·정혜신이 있었다. 중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응급실 의사처럼, 마음 다친 이들에게 응급의학과 노릇을 자처해온 그를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_ 이솔(브랜드전략실)

광고 쪽 일을 하다 업을 바꿔 '심리기획자'로 일하고 있는데, '심리기획자'라는 타이틀을 직접 만들었다고 들었다. 계기가 궁금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 관념상으로는 아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 긴가민가 하는 측면이 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처럼 보여주고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리하여 상대방에게도 나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일을 하는 게 심리기획자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 개개인이 가진 '개별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가 열릴 때, 사람들은 각국 정상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 각각의 기호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몇몇 정상들의 모임이라는 집단적 성격 보다 개별성에 집중해서다. 심리기획자로서 하는 일도 그런 것이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재난의 현장에서 심리치유 관련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그간의 심리학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실험실 학문' 같다고나 할까. 어느 대학 어느 학파인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런 핵심적이지 않은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 재난의 현장에서 치유적 환경을 만들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식의 실용적 심리학에 대한 갈증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심리기획자란 타이틀을 스스로 만들어 그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생각을 현실에 적용하는 중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공간인 <치유공간 이웃>에서 생일 모임을 열어 왔다. '개별성'에 기반을 둔 치유 방법 중 하나로 보이는데.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 250명이 희생됐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큰 사고였구나. 많이 죽었네"라고 답한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생일 모임에 참석해본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게 되지 않는다. 생일 모임을 열면 한 아이를 위해 15명 정도의 이웃치유자(<치유공간 이웃>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그렇게 부른다. 실제로 그들이 치유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가 투입돼 한 달 동안 머리를 맞댄다. 지난 2년여 동안 55번의 생일모임을 열었다. 모임을 앞두고 그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을 알아보고 자주 갔던 장소와 만났던 사람들을 따라가 본다. 자서전을 쓰는 정도의 공을 들인다. 살아서 만나보지 못했던 한 아이의 17살 전 생애를 복원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명의 아이가 나에게 각인된다. 생일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3시간 동안 한 아이를 두고 이야기 나누고 나면 세월호 참사가 어떤 의미인지, 남겨진 부모의 마음이 어떨 지와 같은 생각이 마음에 꽉 찬다. "세월호 이야기 그만 꺼내자"라는 말을 쉬이 할 수가 없다. 개별성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생일 모임을 한 후 '아이를 결혼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토로하는 엄마도 있다. 인정하기 어려웠던 아이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분가가 됐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 인간에게 집중하다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땅에 태어나 열 일곱 해를 살았던 아이들인데 오죽하겠는가.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전체적으로 자존감(self-esteem)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다. 기업 임원이나 사회적 인정을 받은 전문가 집단(교수, 정치인, 법조인,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심리분석 프로그램을 오래 했는데 속마음을 들여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존감이 낮다. 이 사회의 속도감과 압박감이 상당한 수준이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처한 환경 자체가 그렇다. 조카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어느 날 6살 먹은 아이가 다가 오더니 "선생님, 저 정신 차려야 해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엄마가 아이에게 흔히 하던 말이었던 거다. 세상에, 6살 먹은 아이가 정신 차려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 사회가 '기다리는 일'을 잘 못한다. 호랑이 앞에 선 사람처럼 늘 긴장해야 배신 당하거나 사기 당하지 않고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개념들이 끊임없이 주입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배려나 존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다. 행복지수가 높은 부탄이라는 나라에서는 원하다(want)와 필요하다(need)가 한 단어라고 한다.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결국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신부의 식성에 비유할 수 있다. 임신을 하면 안 먹던 게 당기는 데 이는 우리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다. 이럴 때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누가 좋아지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내 욕망을 눌러야 한다고만 생각한다. '내 탓이오' 문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공적 영역으로 가면 남 탓을 하는 '남 탓 리더십'을 보이는 게 우리 사회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그것이 필요해서 임을 인지하면 우리 자존감이 이렇게까지 낮을 이유가 없을 거다.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젊을 때는 가진 게 없으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나는 안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다. 그 시기에는 누구나 그렇다. 우리 막내가 24살인데, 이 아이들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76년, 거의 80년이다. 그 세월 동안 여러 시도를 하고 방향을 몇 번을 바꿔도 상관이 없다. "아님 말고, 다시 하면 된다"가 우리 집의 모토다. 우리 집 아이 셋 다 열린 학교의 시초라는 영국 서머힐을 나왔다. 거기 다닐 때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아이 중 하나가 외국인 동성친구를 데리고 와서 "알고 보니 내가 동성애자네. 얘하고 결혼하려고"라고 말한다면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오케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동성 커플에게는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회적 비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너의 편임을 일깨워주는 게 우리 부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류의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느낀다. 왜 지옥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산다. 이 지옥의 핵심은 자기에 대한 존중과 배려, 집중이 없어서라고 본다.

대학 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중·고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될 때 아내와 나도 거기에 찬동해서 강의, 서명 운동 등으로 힘을 보탠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교육 현장을 모르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가 생겨도 학교가 학생들을 권위로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원칙이다. 전제 자체를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하다'라고 세우고, 그것을 우리 의식 속에 집어 넣는 게 중요하다. 원칙이 정립되면 방법론은 무궁무진하다. 현장 상황에 의해서 원칙을 바꾸라고 하면 안 된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각론을 고민하기 보다 그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원칙, 인간 개별성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으면 방법은 반드시 도출된다.

사회가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호랑이 앞에 선 먹이 같은
긴장 시키는 사회가 곧 지옥

'나는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나는 괜찮은 데가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과 생명력 돼

학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를
최우선시 해야

내 마음 내가 너그럽게 봐주길

'지옥에 갇힌 것만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솔루션을 준다면 무엇이 있을까?

박서영 시인의 <업어준다는 것>이라는 시가 있다. 가족 같은 염소가 물에 빠지자 물에서 건져내 자장가 불러줘 가며 업고 가는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다. 누가 나를 업어주고 자장가 불러 준 그런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는다. 그런 느낌은 말할 수 없이 좋지 않나. 내가 누군가에게 보호 받고 있다는, 괜찮은 데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다. 이런 경험은 때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내 생명의 동아줄이 되기도 한다.

결국 '아는 것', 내가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요즘 시 처방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제목을 <알기만 해도>로 지을까 생각 중이다.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미국에서 열 몇 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사형 집행 전날 엄마와 통화하며 이런 말을 했다 "엄마, 내 안에는 아직도 엄마가 어르고 달래주던 5~6살 그 시절의 내가 있어"라고. 잔인한 살인마 안에도 그런 내가 남아있다. 그런 '나'를 찾아내면,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알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고 있다. 불치의 병을 진단받거나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여기서 인생을 끝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만큼 절망스러울 때, 누군가 나를 소중히 보듬어줬던 그때의 느낌을 떠올리면 살아 남을 수가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절벽과도 같은 사회이기에 외로움도 더 크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채워야 할까?

살면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꼭 한 사람'을 갖는 것이다. 배우자일 수도, 자식일 수도,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다. 그의 눈을 마주보고 있으면 모든 시련을 잊을 수 있는 존재,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꼭 한 사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가 옳았어. 잘했어'라고 이야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떠올려지지 않으면 찾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안정적일 수 있다. 내게는 아내가 그런 사람이다. "참 잘했네. 누구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야"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비난을 하면 세상에 나 혼자 밖에 없고, 아무에게도 이해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나쁜 일을 저질러서 "나 좀 숨겨줘야겠어"라고 했을 때, "그래, 이리 오렴" 흔쾌히 나를 숨겨 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한 밥 한끼 지어주며 꼭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없으면 만들어야 하고 있으면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음'이란 무엇일까?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 중심으로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 할 일은 '봐주는 것', 즉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뿐이다. 요즘 '책으로 배운 무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실제의 경험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만 무술을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보면 누군가 선장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 편이야?" 선장은 이렇게 되묻는다. "지금?"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상황에 나를 중심에 놓고서 몸으로 경험으로 익혀온, 내가 원하는, 내 맘결대로 가는 게 정답이다.

<아주인사이트> 팀과 인터뷰 중인 이명수 심리기획자. 3시간 넘게 '너그러운 마음'의 힘을 느꼈다.

특집 인터뷰

“머리만 쓰고 살려드니까 힘들지… 앞으론 몸 쓰고, 마음쓰는 일이 대접 받을 걸~”

임락경 목사는 ‘돌파리(突破理)’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평생 사 본 책이 10권이 안되고, 읽은 책도 100권 정도지만 그는 유기 농업에 조예가 깊고 집터와 수맥을 짚어 내며 친환경 먹거리와 건강에 대해 두루 박식하다. ‘사람 사는 일’과 관계된 모든 일에 막힘이 없고 동서고금을 가로 지른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치를 돌파한 사람’, 돌파리다. 16세에 집을 나와 직접 스승을 찾아 나섰고, 스승의 말과 삶 그리고 사람과 자연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깨우쳤다. 푸근한 인상 속에 ‘도인’의 풍모를 가진 임락경 목사를 만나봤다.

글_ 이솔(브랜드전략실)

Q 16살 되던 해에 무작정 스승을 찾아 집을 나왔다고 들었는데, 두려움은 없으셨나?

전혀. 오히려 어른들은 자식들이 밖으로 나가기를 바랐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기가 어려웠으니까. 자식들이 나가면 뭐라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발이나 세탁 같은 기술을 배우든 공무원이 되든. 스승을 찾아 집을 나와서 첫 번째 스승, 최흥종 목사님을 만났다. 1880년에 태어난 최 목사님은 의병을 살리기 위해 순검으로 들어갔고 수많은 의병을 살려주었으며, 그 뒤로는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갈 곳 없는 나병 환자를 위한 공동체를 꾸리기도 했다. 애양원과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이 분이다. 최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1966년인데, 광주시 전체 공무원과 학생들이 휴무를 했었다. 목사님과 함께 살 때, 땀 흘려 삽질하고 낫질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아끼고 존경하는 모습을 봤다. 그렇게 여러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보며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린 나의 마음에 꽂혔다. 그 모습을 직접 봤기에 나 역시도 살면서 겸손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Q 1980년대 초 강원도 화천으로 들어와 ‘시골교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며 환경운동, 시민운동, 통일운동 등에 적극 함께 하고 있다. 어려움은 없으신지?

시대 보다 앞선 생각을 하면 비난을 받는다. 조선 시대에 누가 종을 딸 삼고 며느리 삼았다? 이러면 몰락한 양반이 된다. 시집 간 딸이 남편을 잃고 개가를 했다면, 친정에서 다시 받아줄 수가 없었다. 다른 양반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를 않는다. 처음에 결핵 환자들과 함께 지냈던 15년 간, 그리고 이후 30년 간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오며 나도 비난을 받았다. 30여 년 전에는 ‘간첩 식별 요령’이 있었다.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유행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 그 중 가장 큰 죄목이 ‘이유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었다. 나를 담당하는 기무사 요원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심지어 군인을 우리 옆방에 살게도 했다. 1990년대 들어서야 군수, 도지사가 좋은 일 한다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Q 답답하고 억울하지 않았나? 마음이 부대끼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시나?

사바세계에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이 섞여 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60% 정도가 되는 것이고, 게으르게 살면 노여움과 슬픔이 60%가 된다. 40대60이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은 계속 닥치기 마련이다. 기쁨과 즐거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마찬가지다. 힘들 때는 ‘아, 지금 여기가 사바세계구나’ 생각하면 된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 40대60을 만들기 위해서.

Q ‘사람답게 사는 것’, 제 밥값을 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

사람이니까 조금만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신선이나 천사같이 될 수 있다. 누구든 가능하다. 물 찾고 집터 찾고, 잃어버린 물건 주인 찾아주고 다 가능하다. 계속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어릴 적에 철사 하나를 구부리니 어느 열쇠든 다 열렸다. 미제 열쇠가 잘 안 열려서, 한번 자물쇠를 풀어봤더니 구조를 알겠더라. 5·16 이후 화폐개혁이 갑자기 단행됐다. 10환짜리가 1원으로 바뀌었고 그날 당장 돈을 가져다가 바꿔야 했다. 동네 면장인 친척 형님이 집을 비워 금고를 못 연다고 형수가 난리가 났다. 내가 열어줬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렇게 하면 안되겠더라. 다음에 뭐 없어졌다고 하면 나를 의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못 살겠다 싶더라. 뭐 없어 질 때마다 나를 찾아오고, 박정희가 김대중 있는데 알려달라고 찾아올 것 같았다. 신선, 천사, 예언자 흉내가 별거 아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사람이지 않나. 제동을 걸었다. ‘사람 노릇’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말 배울 때, “나 사내, 너 계집”을 제일 먼저 배운다. 우리는 아니다. ‘하늘 천’ 자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 天地玄黃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루황. 7살 때, 하늘은 검고 땅은 노랗다라는 걸 배운다. 미국에서는 하늘은 파랗고 땅은 초록색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아폴로호가 떠서 사진 찍어 보니 하늘은 검고 땅은 정말 노랗다. 1968년 이후에야 세계지도 상의 지구가 황색이 된 거다. 宇宙洪荒 집우 집주 넓을홍 거칠황 우주를 집으로 생각하면 넓고 거칠다.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이 예지를 하는 도인이 된다. 日月盈仄 날일 달월 찰영 기울측 날도 달도 차면 기운다. 辰宿列張 별진 잘숙 벌릴렬 베풀장 별이 기우는 것을 보며 날씨를 예측한다. 농촌에서 10년 넘게 살면 언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안다. 우리는 대자연 속에 사람이 한 구성원일 뿐임을 안다. 이런 사고 속에서 커왔던 거다. 천자문만 잘 배워도 세상 이치를 잘 알 수 있다.

Q 세상이 어지럽고 희망을 찾기도 쉽지 않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 세태를 어떻게 보시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다 바른 말을 하는 ‘투사’가 나와주기를 바란다. 백이면 백 정부랑 맞서는 ‘영웅’을 기다린다. 자기들은 안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하느님이랑 천주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천주님이 이긴다. 그만큼 바티칸, 교황의 힘이 강하다. 감옥에 간 신부 봤나? 목사는 다르다. 소크라테스가 말하지 않았나 “네 꼬라지를 알라”고. 유교, 못된 양반들이 조선을 망쳤지만 훌륭한 선비들이 있었기에 유교가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왔다. 그 어떤 종교보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나. 이건 그런 훌륭한 선비들 덕택이다. 마을의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 준 게 이런 선비들이다. 궁합 봐주고 침 놔주고, 약을 알려주고. 그러면 이게 집안 집안마다의 전통이 된다.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돌아갈 뻔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살아났다”는 게 집안에 대대로 전해진다.

> “니 꼬라지를 알아라
> 스스로는 안하면서 ‘영웅’만 기다리나”

> “밤 11시~1시엔 꼭 자라
> 병원 갈 일 없어진다”

> “땀 흘려라
> 몸과 마음의 독 다 빠진다”

마을에 가난한 선비 한 명만 있으면 마을 전체가 산다. 그런데 이런 선비는 양반의 부조리를 이야기 못한다. 이야기 하면 양반이 그날 저녁에 종 시켜서 오막살이를 흔들어 버린다. 선비의 역할은 경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다. 예전에 동네에서 선비들에게 꼭 초가 지붕 이는 날짜를 물어본다. 비올 때 지붕 걷으면 큰일 나니까 선비들에게 물었던 거다.

젊은이들이 딱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바라는데, 그런 사람 안 나온다. 내가 앞장서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최소한 국민 절반은 아는 사람, 그 수준의 지지를 받는 사람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Q 학교가 아닌 밖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며 인간과 세상에 대해 공부해오셨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

내가 군대 생활할 때에는 “밖에서 미장했던 사람, 목수 했던 사람, 세탁일 했던 사람 나와라”하면 다 나왔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컴퓨터 다뤘던 사람만 많이 나온다. 컴퓨터는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인건비 많이 들이면서 나이든 사람을 쓸 필요가 없다. 나이 들면 퇴직금 받고 나올 수밖에 없다. 퇴직금이 오래 못 가고, 사업이다 뭐다 해서 금방 빈털터리가 된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인력시장으로 간다. 그런데 40kg 시멘트를 들 수가 없다. 무거운 것 들다가 몸을 다치고 나면 갈 데가 없이 노숙자가 된다. 딸 넷을 기르며 고교 졸업하기 전에 시멘트 한 포대는 들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요즘은 군인들도 그 정도를 못 든다. 머뭇대던 군인들이 19살 먹은 우리 딸이 들고 옮기는 모습을 보더니, 금방 다 따라 했다. 머리만 가지고는 못 산다. 노숙자 되지 않으려면 무거운 것을 들 줄 알아야 한다. 몸 쓰는 일 하는 것과 사무직으로 월급 받는 것이 대우, 벌이에 있어서도 갈수록 큰 차이가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해야 할지를 모른다. 어디로 갈 지를 모른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민주화, 복지, 환경 운동… 사방에서 지금도 나를 불러댄다.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다.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 나는 환경 쪽으로 간다.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죽는 게 환경과 관련된 문제다. 희생자의 숫자도 엄청나다. 안일하게 건강 강의 하고 다닐 때냐고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나는 환경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막중하다고 본다. 통일 문제, 지구 상에 우리만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도 젊은이들이 뛰어들어야 한다.

Q 많은 젊은이들이 같은 곳을 보고 걸어간다.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에 몸도 맘이 지쳐만 가는데……

100명 중의 1명 정도나 출세한다. 100분의 1 확률인데 모두들 자기가 거기에 낄 줄로 안다. 밀림에서는 창을 잘 써야 추장이 된다. 우리는 벌판에서 세운 나라라서 말 잘 타고 활과 칼을 모두 잘 써야 한다. 조선을 세울 때까지 계속 그런 사람이 왕이 됐다. 이후 머리만 잘 쓰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칼 쓰는 사람이 왕좌를 넘볼까 싶어 문, 무, 백관 이라는 벽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괴로운가. 문관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하니 세금 바칠 곳이 점점 늘어간다. 신분제가 무너지고 천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너도나도 고등고시로 몰려들었다. 머리 쓰는 사람들이 계속 나라를 지배해왔으니, 다들 그 쪽으로 움직였다. 점점 힘 쓸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려워진다. 힘 반 머리 반 쓰면 우울증이 안 온다. 그런데 머리만 쓰다 보니, 힘을 쓸 줄 모르게 되어 문제다. 선진국은 힘 쓰는 사람을 대우해줬다. 우리나라는 손이 까맣고 흙 묻고 거칠면 대놓고 무시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힘 쓰는 일’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정신 노동’은 없다. 성립이 안 되는 말이다. 땀 흘리고 일하는 것만이 노동이다. ‘불한당(不汗黨)’ 땀 안 흘리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아주 나쁜 말이었는데, 요즘 이런 말이 없어졌다.

사람마다 타고난 소질이 있다. 전공만 살리면 된다. 일 체질, 운동 체질, 머리 체질이 있다. 노래를 못하는 데 가수를 한다고 그게 되나? 전부 다 머리 쓰는 쪽만 바라보고, 지금까지는 머리 쓰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니다. 땀 흘리는 사람 쪽이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예전엔 밥 먹은 것, 이부자리 어질러 놓고도 공부만 잘하면 됐다. 이제는 그런 사람 환영 받는 시대가 아니다.

Q 자연 치유법에 대해 꾸준히 강의를 다니고 <흥부처럼 먹어라, 그래야 병 안 난다>, <먹기 싫은 음식이 병을 고친다>와 같은 책도 펴낼 만큼 건강에 대해 조예가 깊다. 청년들에게 건강과 관련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버터 먹고 빵 먹고 살아온 서양 사람들과 된장찌개에 상추쌈 먹고 살아온 우리 나라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 사람 병은 <동의보감>이 고치고 서양사람은 서의보감이 고친다. 우리 나라 식습관이 반 이상 서구화됐기에 나는 어려서부터 ‘중의보감’을 연구해왔다(웃음).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최대한 멀리해라. 또 땀을 흘려라. 독을 먹어도 땀을 흘리면 빠져나간다. 잠자는 시간 역시 중요하다. 24시간 중 잠은 ‘자시(子時, 밤 11시~오전 1시)’에 자야 한다. 4시간만 자면 절대 병이 안 난다. 밤 10시부터 2시 까지가 중요하다. 피로가 이때 풀린다. 내 두 번째 스승 유영모 선생이 평생 4시간만 주무셨다. 병원에 한번도 안가고 90세 넘게 사셨다. 낮에 일하고 공부하고, 밤에는 자야 한다. 잠이 안 와도 불 끄고 누워있어 봐라. Q

인터뷰 후의 임락경 목사. 재치 넘치는 입담 속의 넓이와 깊이에 감탄한 시간이었다.

임락경 시골교회 목사

1945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다. 공무원, 목사 없이는 살아도 농사짓는 사람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아 초등학교 때 이미 농사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훌륭한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했고, 집을 나와 직접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들과 함께 무등산 동광원에서 15년 간 결핵환자를 돌봤다. 1980년대 초 화천으로 들어가 ‘시골교회’를 일궜다. 정부 지원 없이 장애인, 병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직접 꾸리면서 틈틈이 건강과 농사에 대해 강연을 다닌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며 ‘예수의 삶’을 몸과 맘으로 직접 전했던 스승들의 이야기를 담아 <임락경의 우리 영성가 이야기>를, 음식과 건강에 대한 소신을 담아 <돌파리잔소리>, <흥부처럼 먹어라 그래야 병이 안 난다>, <먹기 싫은 음식이 병을 고친다> 등을 펴냈다.

특집 기고 / 내 마음을 위한 나의 쉼

공포영화보다 공포스러운 시대에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에게 '쉼'이란 '술'이다...라고 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여전히 술을 만신창이로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요즘 난 술을 그리 많이 하지 못한다. 건강이 많이 상했다. 이제는 즐기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마실 뿐이다. 그렇다고 나에게 '쉼'은 '여행'이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다. 여행을 가기 위해 그 앞에 일을 몰아서 하는 걸 늘 지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삶이 풍족하지 못하면 여행의 계획이란 건 쉽게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저 잦은 지방, 해외 출장에서 틈을 내 다니는 것 정도가 지금껏 살아 오면서 누렸던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뭐, 그나마 그게 어디인가. 그것도 나름 혜택인 셈이다.

다들 놀랍게도(물론 관심도 없겠지만) 나에게 '쉼'이란 '공포영화'를 보는 일이다. 그냥 영화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주기 바란다. 공포영화다. 그것도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사방으로 튀는, 목이 뎅강뎅강 잘려 나갈 만큼 사지절단의 끔찍한 영화들, 영화 쪽 전문용어로 슬래셔(slasher) 무비나 스플래터(splatter) 무비를 볼 때 나는 넋 놓고 쉬는, 유체이탈의 해방감을 느낀다. 내가 생각해도 그것 참 기이한 얘긴데, 아마도 그 극악한 비주얼이 주는 비현실성이 역설적으로 현실의 피곤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가도…종종 내 마음 속에 혹시 그런 지독한 폭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곤 한다. 물론 난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폭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80년대 때 그 수많은 시위 현장에서도, 지금 와서 고백하건대 화염병이나 돌을 던진 적이 없다. 던질 때는 던지고 불태울 때는 불태워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비폭력적 저항이 낫다는 생각을 난, 여전히 갖고 살아 간다. 요즘, 특히 요즘 같은 때에 그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영화 속 공포의 비현실성을 즐기는(?) 이유는 때로 현실의 공포가 그것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공포의 수위가 저 영화 정도라면 오히려 훨씬 견딜 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요즘을 보면 이 얘기가 실감나지 않을까? 현실이 가장 공포스러울 때는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울 때이다. 근데 그건 나를 쉬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요즘 집에 들어 와 '적당한', 그리고 나중에 가면 주인공이 꼭 살아나고, 또 이기는(이게 중요하다. 이기는!) 공포영화를 튼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권하는 바이다.

마음도 체력이나 실력만큼 단련을

하석주
아주대 축구부 감독

선수 시절 74kg이던 몸무게를 은퇴 후에도 76kg 정도로 유지해왔다. 그런데 11~12월에는 어김없이 체중이 불어난다. 졸업을 앞둔 축구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밤낮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때문이다. 보통의 대학생들처럼, 어려서부터 축구만 보고 달려온 우리 축구부 선수들에게도 요즘은 진로와 취업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때문에 감독으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프로팀과 실업팀 뿐 아니라 해외 리그까지 두루 사람들을 만나 보고 들으면서, 우리 선수들이 갈 자리가 있는지 어떤 자리에 우리 선수들이 잘 맞을 지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감독이라는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것들이 하도 많다 보니 '선수 시절이 좋았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때는 나 하나만 잘 하면 다 해결되지 않았던가. 처녀 총각이 혼자 살 때와, 결혼해 아이 낳고 양쪽 집안 챙기며 살 때가 천지 차이인 것처럼 선수와 감독 시절은 하늘과 땅 차이다. 부담감과 책임감이 그만큼 크다.

그래서 나는 찜질방에 간다. 뜨거운 황토방에 들어가 땀을 빼고, 나와서 가만히 눕는다. 그리고 또 황토방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한다. 그러고 있노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등산도 자주 간다. 집 앞산이나 수원 광교산을 1~2시간씩 오르다 보면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그리고 내려올 무렵에는 그 생각들이 싹 정리된다. 평생 운동을 해왔기에,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찌뿌둥해진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고, 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았다. 남에게 지기 싫었고, 내 위치에서 제일 잘 하는 선수가 되고 싶었다. 선수 시절 내가 이룬 성과에는 운도 작용했지만 80%가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라고 자부한다. 운동량이 많았기에 늘 자신 있었다.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라운드에서는 늘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쏟아부어야 한다. 숨이 턱 끝까지 찰 때까지 뛰어야 그게 습관이 되고 실력이 되지, 숨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수준으로만 뛰어 왔다면 100%를 할 수가 없다. 하려고 해도 부상을 당하거나 탈이 난다. 몸을, 체력과 실력을 단련하는 것과 함께 내 마음을 다스리려는 노력도 꾸준히 해왔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선수는 그라운드에서도 그렇게 축구를 한다.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고 욕심을 내면 낼수록 동료들과 멀어진다. 축구는 개인이 아닌 팀 경기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정서이고 그라운드에서도 마찬가지다. 잘 하는 선수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런데 남을 미워할수록 나 스스로가 더 힘들어 진다. 그래서 뛰어난 동료 선수들을, 그들의 실력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노력했다. 성품이 좋고 열심히 하는 선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선수를 싫어하는 코치나 감독이 어디 있겠는가. 좋은 코치와 감독을 만나면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면 일정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나는 축구를 하겠다. 더 좋은 축구선수가 될 것 같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운동하는 여건이 좋다. 축구를 즐기면서 하는 유럽 선수들처럼, 나도 그렇게 축구를 즐기며 해보련다.

묘기자전거를 타며 세상에서의 묘기를 꿈꾼다

강민석
미디어학과 4학년

지금 저는 대학생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원서를 쓰고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준비하러 다닙니다. 계속 시험대에 오르고 또 떨어지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더욱 쌓여만 갑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 저는 '묘기 자전거(BMX)'를 탑니다.

공터에서 자전거 묘기를 연습하는 동안,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정강이 이곳 저곳에는 시퍼런 멍이 듭니다. 연습 과정은 이리도 힘이 들지만, 묘기가 성공하는 그 순간의 뿌듯함은 엄청납니다. 말 그대로 '피 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일까요? 위험한 기술을 연습할 때,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 부상의 고통 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BMX를 타는 동안에는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잊고 온 몸에 있는 신경에 집중합니다. 성공의 쾌감을 맛 보았기에 더 열심히 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즐거워서입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알려주고, 각자의 팁을 공유하면서 다같이 기술을 연마하는 것. 그러한 교류 자체가 정말 멋집니다. 그들과 함께 했기에 어려운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도 더 빨랐습니다.

BMX에 한껏 몰입해 있다 다시 제 생활로 돌아오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고난도 묘기 기술을 연마해 온 것처럼, 이 어려운 취업 전선에서 언젠가는 꼭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에게 활발히 피드백을 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고작 2년차 라이더이지만, 남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더 멋진 묘기를 선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집 기고 / 내 마음을 위한 나의 쉼

쉰다는 것은 원시 유전자의 권리이지…

최영화
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교수

나에게 쉰다는 것은 주말에 부엌일을 안한다는 것이지.

아침, 점심, 저녁을 내 손으로 해 먹으면 정말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지. 고된 하루야.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은 소망, 기가 있는 음식, 뭔가 다른데 그 뭔가를 설명하기 어려운 집밥, 누구나 먹고 싶어 하는 것. 그렇지만 집밥이 의미를 가질 때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 준 밥일 때야. 나는 집밥을 좋아하지만 주말 내내 끼니마다 밥을 하느라 수 시간을 보내노라면 이 일은 정말 잔인한 일이라 생각해. 내가 해낸 세끼 밥은 고된 노동이지. 주중엔 직장으로, 주말엔 주방으로. 내게도 쉴 시간이 필요해.

나에게 쉰다는 것은 걷는 것을 말해.

같이 걸어도 좋고 혼자 걸어도 좋지. 자동차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은 일을 하기 위해 가는 시간이지 쉬는 시간이 아니야. 나는 혼자서 산길을 시골길을 또는 나무그늘을 목적 없이 걷고 싶어. 그러면 내 허파는 닫힌 모든 꽈리들을 열어젖히겠지. 슬렁슬렁 뛰던 심장도 두르렁두르렁 펌프질을 해대는 거야. 장딴지는 뻣뻣해지고 허벅지는 굵어지겠지. 궁상맞게 움츠러들던 생각도 어깨를 펴고 좋은 웃음도 그냥 나는 거야. 왜 그렇지? 몰라, 꽃망울 터지 듯, 갑자기 생각이 터지는데, 또 마음이 너그러워지는데, 따스한 햇빛의 영향인지 모르지, 그래, 그래서 걷는 것은 쉬는 것이지.

나에게 쉬는 것은 다섯 평 밭을 일구는 것이지.

내가 다섯 평 밭을 일굴 때는 뭔가를 키우기 위해 땀을 흘린다는 것이야. 물론 흙을 뒤집어 엎어야지. 삽질을 할 줄도 알아야 해. 돌을 고르고 흙을 부드럽게 골라야 해. 손으로 흙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 잘게 부수어 곱게 한 다음에 거름을 살살 뿌려주는 거야. 그럼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기 쉽지. 그리고는 늘 들여다보아야 해. 손톱만한 싹들이 나오면 환호성을 질러도 좋아. 내가 얘들을 키웠다. 내가 엄마다. 내가 시작이다. 생명을 키우는 것은 내게 용기를 주지. 한바탕 흙과의 싸움은 땀과 흥겨움과 보람으로 연결되는 일이야. 이것은 머리로만 사는 반쪽 인간에게 육체와 자연과 우주를 연결하는 일과 같아. 정신과 육체와 자연 속에서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내겐 쉬는 것이지. 정신을 놓았으니까.

나는 때로 목적 없이 읽으면서 쉬지.

머릿속에서 연구 목표 및 필요성, 연구내용, 결과,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활용 후 계획, 연구비와 실행 예산, 참고 문헌, 그래프 예산이 뒤놀더라도 나는 잠시 예상할 수 없는 어느 작가의 다른 인생, 다른 세상, 다른 소리를 듣지. 이렇게 사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야. 어쩌면 이러다 죽으면 아쉬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 정신을 놓고, 운 좋게 받은 인생을, 좋아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하면서 사는 거야. 나는 이야기를 좋아하잖아? 권위에 굴함 없이, 지금은 쉬는 시간, 나는 잠시 쉬는 세상에 다녀오겠어요.

나에게 쉰다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수다를 떠는 것이지.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온 세포들이 널브러져 헤헤거리고 널레널레 흥에 겨워 춤을 추지. 큰 근심이었는데 바람 빠진 풍선처럼 새애액 작아지지. 할만 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될 것도 같고, 뭐 안되면 어때 배짱도 생기고, 아이디어가 휙 지나가기도 해. 좋아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하늘이 준 계시처럼 마법의 주술로 남지. 너를 사랑해. 네가 제일 좋아. 재재거리는 수다가 머리를 텅 비게 해. 그래서 나는 다시 채울 수 있지.

그리고 모든 몸 쓰는 놀 것들은 나의 원시 유전자를 흥분시키지.

그것이 나의 휴식, 정신 놓기. 원래 우리는 태어나기를 같은 곳에서 한 시간씩 서 있거나, 한 시간씩 앉아 있거나, 같은 곳을 한 시간씩 바라보거나, 같은 손동작 발동작을 몇 번 이상 반복하거나 그럴 수 없도록 태어났지. 원래 우리는 이런 저런 근육을 다 쓰도록 태어난 거야. 엉덩이를 10시간 이상 붙여 놓고, 열 손가락을 몇 센티미터 안에서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하게 태어나진 않았어. 그래야 했다면 이렇게 긴 다리를 만들진 않았겠지. 네모 상자 안을 벗어나 내 온 근육을 쓰면 구석에 처박혀 있던 원시 유전자들이 제 세상 났다고 휘돌지. 어화디여, 에헤라디여.

쉰다는 것은 일없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얻는다는 것이고, 홀로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자연과 교감한다는 것, 땀을 흘린다는 것이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지. 노동 없이 살 수 없지만 또 노동만으로 살 수 없는 것. 누군가 노동만으로 살게 한다면 두 다리로 버티고 두 팔로 밀어 내게 주어진 인간의 자연 권리, 그 쉼을 주장하리, 이루어질 때까지.

잊고 살았던 것을 꺼내며…

김성환
물리학과 교수

처음에 본 원고 의뢰를 받고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제가 '마음, 그리고 쉼'인데 정작 본인은 제대로 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칭, 타칭 '힐링 전도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작성하면 훨씬 감동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서점에서 방송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으니, 전혀 아닌 사람의 주절거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계속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 같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면서 특히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시험이 끝나든, 논문이 출간되든 하나의 큰 일이 끝나면 마음이 홀가분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면 대부분 '리젝'을 받고, 그렇다고 한 논문에만 공들이고 있으면 실적 기준을 채우지 못해 승진에 애로사항이 꽃피겠지요(만화의 한 구절입니다). 승진만 문제면 좋겠는데, 실험을 하는 사람이라 연구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실적이 있어야 당연히 연구비를 신청할 때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연구비도 없는데 어떻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 같습니다. 학생들 인건비도 문제이고요. 학부생들 수업도 그렇고요. 잘 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이들이 서로 얽혀있으니 고민이 끊이지 않네요.

그래도 계속 고민만 할 수 없기에 쉴 필요가 있습니다. 일과 관련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래 저를 아무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두 가지는 '농구'와 '애 보는 일'이었습니다. '농구'는 주로 직원 농구팀과 어울려 동료 교수님들과 게임을 뛰고는 합니다. 힘들기는 해도 뛰다 보면 개운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다시 일하기도 즐거워집니다. 뒤돌아보면 고3 때도 그리 버텼던 듯 합니다. 그리고 집에 어린 꼬맹이를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키우려니 육체적으로는 힘들긴 한데 정신적으로 아무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정신 건강에는 좋네요. 귀엽기도 하고요.

다만, 최근에 또 다시 작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같이 농구하는 직원 선생님들과 동료 교수님들이 워낙 바빠지셔서 자주 플레이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노쇠화가 진행되어 부상 위험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목을 바꾸든지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육아문제도 아들놈이 이제 조금 컸다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것 보면 재미있기는 한데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지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한 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을 꺼내면 됩니다. 조만간 레고 조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B급 만화책도 있고요. 그리고 애랑 놀이터 갔다가 같은 아파트에 동기 친구가 살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술 같이 마실 사람도 하나 늘었군요. 그래도 제일 바라는 것은 처음 언급한 고민거리의 해결입니다.

특집 기고 / 내 마음을 위한 나의 쉼

'청춘의 저항'을 노래한다

필자는 아주대 91학번이며, 록 밴드 동아리 스파이더스 14기 드럼이다. 지금은 스파이더스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스파이더스를 빼고는 나의 대학 생활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다. 드럼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다. 이후 스파이더스를 거쳐 직장인 밴드(Cartoon People)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나는 록(Rock)을 즐기고 있다. 록 음악의 근간인 '록 정신'은 보통, 청춘성, 폭발성, 저항성 및 예술성을 대변한다. 청춘성이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록 음악이 청춘을 위한 것임에 기인한다. 폭발성은 1970년대 흥했던 영국의 펑크 록에서 이해의 단초를 얻을 수 있다.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IMF의 지원을 받아야 했고, 엄청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영국의 펑크 록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무능한 기성세대를 공격했다. 예술성은 록과 팝의 차이를 보면 된다. 록은 자연 발생적이며 반상업적인 데 비해 팝은 제도권 안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 '업자'들의 상품에 불과하다. 즉, 요즘 걸 그룹의 음악은 팝이다.

필자는 취미로 록 밴드 활동을 한다. 2주에 한번 정도 팀 동료들과 연주를 하며, 1년에 두 번 정도는 홍대 주변의 클럽에서 공연한다. 연주하는 음악의 선율과 가사에는 서정성뿐만 아니라, 저항성도 녹아있고, 강력한 사운드에는 청춘의 힘과 폭발성이 담겨 있다. 밴드는 적어도 3명 이상이 하모니를 이루어 음악을 만들어내는 '조화'의 취미다. 다른 멤버와 호흡이 맞지 않거나, 실력이 현격히 차이가 나면 그 조화는 깨지게 된다. 이는 어느 정도는 '잘'해야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멤버들의 연주 실력과 친밀도 등이 밴드를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선호하는 음악과 그 음악에 대한 자세도 밴드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무수히 많은 밴드들이 해체와 재결함을 반복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밴드의 묘미는 개인 연습을 통해 생각했던 곡이 멤버들의 합주를 통해 새로운 곡으로 창조되는 바로 그 과정에 있다. 머리 속에 그리던 곡이 멋지게 재탄생 하는 것을 듣노라면 그간 쌓였던 여러 스트레스들이 단 한번에 날아가버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청량제가 아닐 수 없다. 연구 과제를 진행하며 쌓였던 짜증도, 제출 논문의 리젝에 따른 좌절도, '같이 망하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도, 건방지거나 나태한 학생들에 대한 미움도 합주의 짜릿함으로 훨훨 날려버린다.

나이가 60이 되어도 청춘성, 폭발성, 저항성, 예술성을 가진 록을 즐기고 싶다. '아직 젊다'고 세월을 향해 떼를 쓰는 내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오롯이 즐기는 내가 되고 싶다.

이교범
전자공학과 교수

'멍때리기'와 '진지한 향상'

사람은 누구나 지친다. 몸을 혹사하면 몸이 지치고, 마음을 혹사하면 마음이 지치기 마련이다. 한꺼번에 엄청나게 몸을 무리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누적되는 피로는 결국 한계점을 넘어 몸을 상하게 한다. 몸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스트레스의 차이는, 이 경계신호를 알아차리는 데 있다. 몸이야 피곤하면 잠깐씩 쉬거나 다른 조치를 찾아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마음에 계속해서 누적되는 피로와 상처는 알아차리기도 끊어내기도 어렵다. 어쨌든 사람마다 쉬고 재충전하는 방식은 있을 터이고(아마도?) 그 방식이 대단히 특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 내가 스트레스를 주로 해소하는 방식 또한 사실 평범하기 그지없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산책하고, 여행하고, 운동하고,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만 정리하면 너무 무책임할 것 같아 몇 가지 내가 취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았더니 다음 상황이 떠오르기는 한다.

· 주기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멍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정확한 정신적 휴식 타이밍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매일 몇 번씩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다.

·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운동이나 악기연주 같은 취미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메인 스트레스에 덮어씌우는 것인데, 그냥 분위기 쇄신 정도가 아니라 '진지한 향상'을 전제로 자신을 어느 정도 몰아붙여야 한다. 신기하게도 이 두 스트레스는 서로 겹치지 않고, 취미 스트레스의 경우 메인 스트레스를 통째로 덮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넓지만, 그만큼 깊지는 않기 때문에 마음이 스트레스 속에 파묻혀 가라앉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인데,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자신이 내리는 선택과 결정, 노력의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 일에 있어, 내가 실패한다면 나의 미래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는 않을까? 시험, 면접, 우정, 연애, 가정사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과 평가에 노출되어 있다.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움직이며, 결국 어떤 결과로 뭉쳐져 나타나게 될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소중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확실하게 남는 것은 '즐거웠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기분 좋은 추억이다. 물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어디 없어지기야 하겠느냐 마는, 미래를 위해 이걸 해야 하고 저걸 실패하면 큰일 난다는 둥의 주변에서 겁주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자. 내가 끌리는 방향을 택하고, 보람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면서, 실패하면 반성하고 성공하면 뿌듯해 하며 한걸음씩 나아가면 된다.

김성욱
건축학과 교수

'디지털 쉼'이 주는 '아날로그 맛'

스몸비(smombie). 온종일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들을 좀비에 빗대어 만들어낸 신조어다. 고개를 15도 정도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은 흡사 새로운 종족 같아 보이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표지판을 만들기도 했다. 이것은 비단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여기저기 스몸비들이 넘쳐난다. 나 역시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때로는 손바닥 위의 스마트폰이 확장된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하니 말이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24시간을 함께 하는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기라는 개념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 보인다.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자신의 분신이나 확장된 자아로까지 인식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두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지만 때로 지나친 디지털화가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접속과 연결이 가장 중요한 명제인 디지털 사회는 건강한 고독과 자발적 로그아웃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요즘 주말 중 하루를 정해 일정 시간만이라도 디지털로부터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노력 중이다. 스마트폰에서 만큼이라도 해방되어보고자 시작한 나만의 '디지털 쉼' 방법이다. 미디어에서는 최근 이를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라 일컫기도 한다. 쉽게 말해 디지털기기를 없앤(digital device free) 아날로그의 시간으로 잠시 되돌아가보는 것이다.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잠시 아날로그 세상을 풍부하게 누려보는 것도 자신을 위한 좋은 휴식이자, '퀄러티 타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퀄러티 타임은 주로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보내는 '나만의 시간'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이를 지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본다면 이것만큼 멋진 퀄러티 타임이 또 어디 있겠는가. 스마트폰 사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디지털 쉼'을 실천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그것이 어떤 요일이건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본인이 가장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디지털기기를 모두 한쪽으로 치워놓는 것이다. 작은 박스를 하나 정해서 그곳에 넣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원을 끄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잠깐 바꾸어놓거나 커뮤니케이션용 어플리케이션들의 알람을 잠시 오프로 설정해놓아도 좋겠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원하는 일을 하면 된다. 더 이상 무의미하게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두드릴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몇 시간의 적응에 성공하면, 다음 번엔 하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휴가기간 전체로 늘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짧은 흥미성 기사를 클릭하는 대신 한 호흡으로 길게 종이 신문을 찬찬히 읽는 재미를 느끼는 것. 스크린의 텍스트나 이모티콘 대신 오랜 친구의 눈과 표정을 보며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디지털의 공허함이 줄어드니, 아날로그의 충족감이 늘어가는 중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틈에서는 허용되지 않던 사유의 결이 생긴 것이 최근 가장 즐거운 변화 중의 하나다. 그리고 짧은 이 글이 바스락거리는 질감과 잉크향을 품은 종이로 읽힐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장예빛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유쾌한 반란'이 세계를 갑니다 –

"그 친구를 보내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를 알고 있습니까?
꿈과 의지는 높으나 힘들어 하는 학우가 곁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AFTER YOU 프로그램>에 추천해주십시오!

그에게 당신과 우리 학교, 사회, 그리고 미래가
값지고 뜻 깊은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어려운 그 친구가 혹시 당신이라면 직접 신청하십시오.

인생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나보다 너 먼저~"가 당신에게서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FTER YOU" 프로그램
2016 겨울 아주글로벌캠퍼스

올 겨울
아주인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중국 북경에서
4주간 펼쳐질
뜨거운 열정에
아주인 모두가
동참해 주십시오.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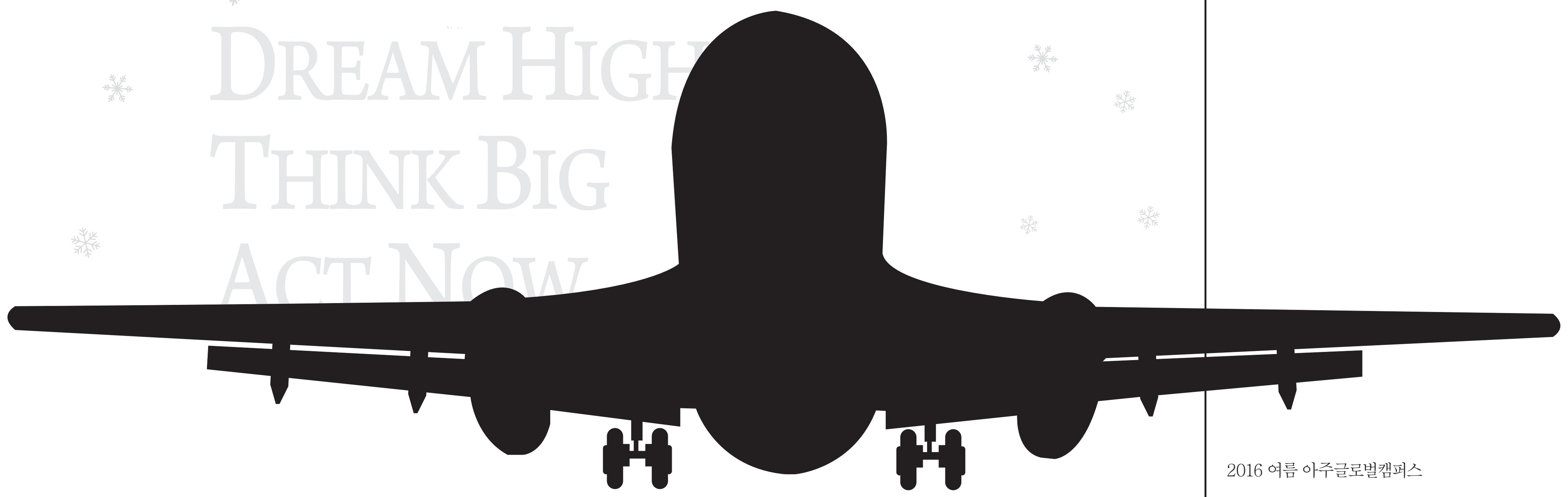
북경이공대학

2016.12.26~2017.01.22
/ 4주

고밀도 중국어 집중 학습 +
현지 재학생과 언어 실습

수준별 6개반 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중국문화탐방 및 특강
인원 30명
전액 장학(약 250만원 상당)



2016 여름 아주글로벌캠퍼스

미시간대학교 상해교통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 워싱턴대학교 북경이공대학교

학우 여러분, 교수님, 교직원 분들께서 알고 계신 어려운 학우님에 대한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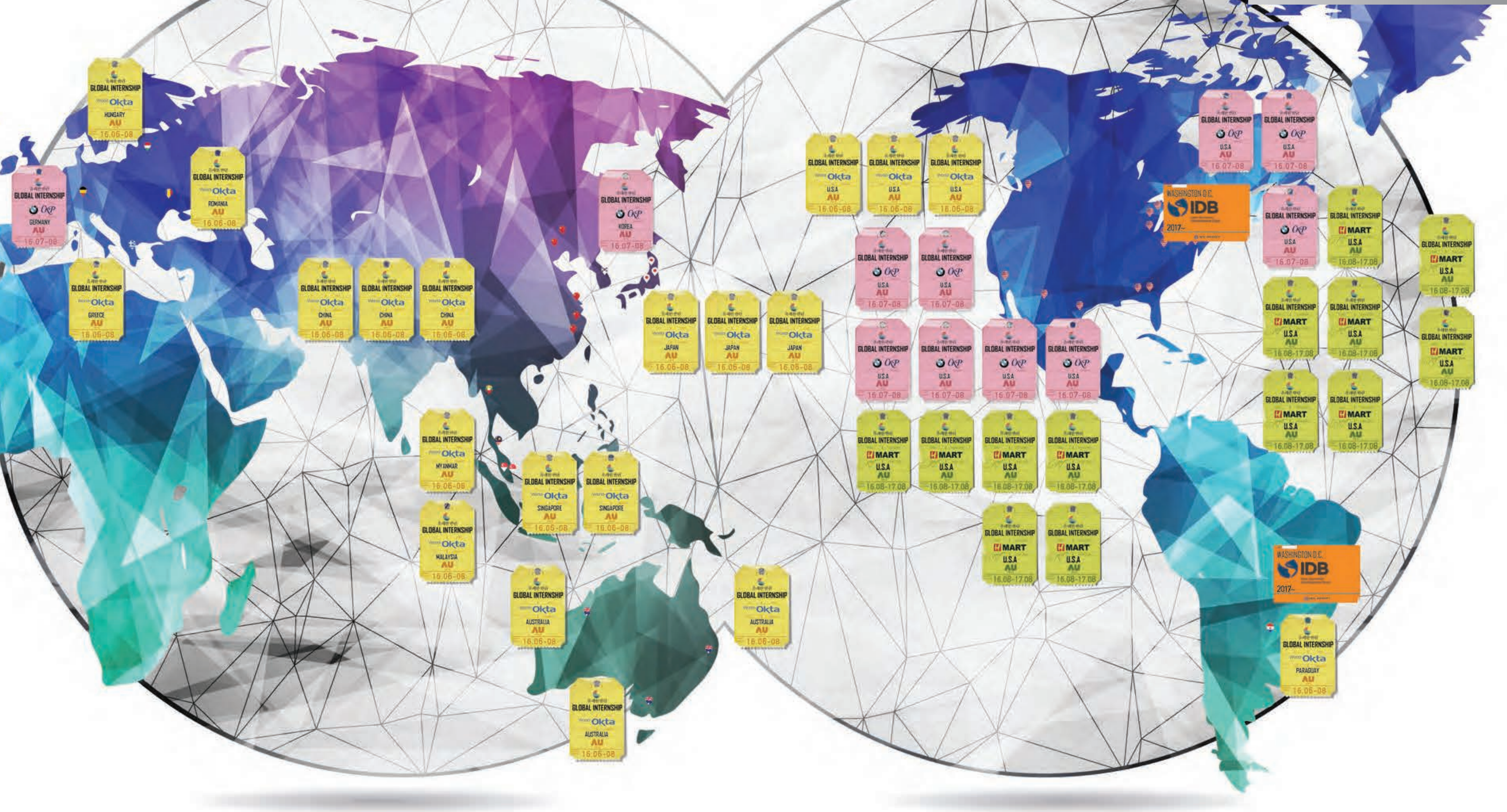
031 219-2035/2923

어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이 유쾌한 반란이다

유쾌한반란 Global Internship

WORLDWIDE AJOU
2016 REPORT

아주대학교는 <유쾌한 반란 글로벌 인턴십>을 마련해 학생들이 글로벌 기업의 문화와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15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BMW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CKP(Choi,Kim & Park,LLP) 등과 함께 해왔던 글로벌 인턴십은 올 들어 World-OKTA(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H마트 등으로 확대됐다. CKP는 미국 내 최대 아시아 회계법인, World-OKTA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들의 경제·무역 단체다. H마트는 북미지역 최대 규모의 아시안 마트로 미국과 캐나다에 6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인턴십에 참여한 아주대학교 학생들은 미국과 일본, 중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파라과이, 핀란드 등 세계 20여개 국가로 파견되어 왔다. 인턴십 기간도 짧게는 2달부터 1년까지 다양하다. 앞으로는 국제 기구 인턴십의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과 상호협약을 맺고 학생 인턴 파견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세계의 지혜를 아주로~" "아주의 정신을 세계로~"

GERMANY

"반드시 경험하길!"
강정호 경영 12

첫 2개월은 BMW Korea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개월은 BMW 독일 본사에서 근무했다. BMW Korea에서는 CRM 부서에서 일했다. 책에서만 배우던 경영학 지식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CRM 부서에서 내가 맡은 업무는 Sales Funnel Management였다. 잠재적 고객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 구매 고객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 업무다. 한국에서의 인턴십이 끝나고 기대에 부푼 마음과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독일 본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독일 본사에서는 Aftersales Business Sales channel development 부서에 속해 있었다. 이 부서는 BMW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Pick up & Delivery service에 대한 글로벌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무를 한다. 전 세계 시장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동일한 가격, 품질로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시장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 부서에서 일하면서 자동차 산업에서 Aftersales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고객에게 팔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비로소 BMW 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BMW에서 근무하면서 유연한 근무 시간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결합되어있다는 것을 느꼈다.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매우 자유롭고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출퇴근 시간이 매우 유연하고, 본인이 맡은 일을 끝내기만 한다면 자유롭게 퇴근을 할 수 있는 문화였다. 이러한 문화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동기부여 하고 생산성도 높였다. 더불어 BMW에서는 인턴도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맡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배울 점도 많고 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 BMW에서 인턴들은 중요한 일도 많이 맡아서 한다. 정직원들도 인턴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인턴의 책임감도 그만큼 높아진다. 나도 여러 중요 업무를 맡았고 하나 하나씩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마다 동료 직원들의 칭찬을 받았다. 이럴 때 마다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다. 5개월간 BMW에서 일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 많이 배웠고, 해외에서 일한 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막연히 해외취업을 생각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다. 나의 스위스 교환학생 경험이 인턴십이라는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듯이, 이번 경험이 후에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혹시 해외 인턴십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경험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유쾌한 반란 Global Internship BMW CKP

글로벌 자동차 기업 BMW, 미국 최대 아시아 회계 법인 CKP와 함께 진행해온 인턴십 프로그램.
BMW 인턴십은 BMW코리아에서 2달, 독일 본사에서 3달을 근무한다.
CKP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유쾌한 반란 Global Internship World-Okta

세계를 무대로 하는 한인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 실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는 아주대학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유쾌한 반란 Global Internship H MART

북미지역 최대 규모의 아시안 마트로 미국과 캐나다에 6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H마트.
H마트 인턴십은 총무, 인사, 재무,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유쾌한 반란 Global Internship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아주대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상호협약을 맺고 국제 기구 인턴십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AUSTRALI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일은 양이 아니라 질!"
이한빈 경영 14

인턴십 시작을 앞두고, 한 번도 해 본적 없는 회사 생활에 대한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나의 깊은 우려와 달리 시드니 무역관에서의 생활은 즐겁게 시작됐다. 무역관 직원 분들은 내가 인턴십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잘 알려주셨다. 덕분에 '내가 이거밖에 안되나' 좌절한 적은 있어도 그 누구도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적은 없었다.

지사화팀, 투자팀, 마케팅팀을 2달씩 돌아가면서 일했다. 각 팀을 다니며 지루할 틈 없이 많은 것을 배웠다. 호주 기업과의 미팅에 참가하거나 멜버른 <Screen forever>와 같은 큰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호주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했다.

인턴으로 왔지만, 인턴은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존중 받으며 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배울 게 없는 기업이라 생각한다. 시드니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 내가 자연스럽게 청소나 잡다한 일을 하려고 하니, 한 직원 분이 나에게 "그거 하려고 이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많은 걸 배우고 느끼려고 오신 거에요"라는 말을 해주셨다. 수직적인 문화에 익숙한 탓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조직의 맨 밑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나는 항상 조급했고 걱정이 많았다. 지금도 느리고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호주에서 인턴을 하면서 '일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느꼈다. 배움은 느린 시간 속에 피는 꽃이라 생각한다. 일을 빨리 하면 좋지만 제대로 잘 끝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PARAGUAY

World-Ok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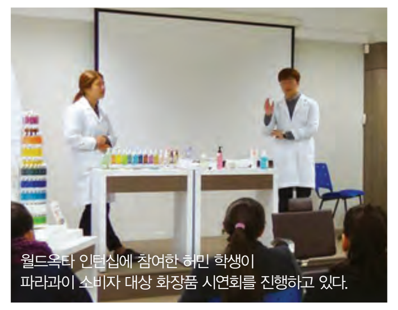
"소중한 체험과 사랑을!"
허민 응용화학생명공학 12

미뤄두었던 '취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며 글로벌 인턴십을 발견했다.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던 나에게, Terra nova라는 기업은 한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Terra nova는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로 파라과이뿐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로도 진출한 회사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beauty를 직접 몸소 경험하고 올 수 있는 기회였다. 35시간을 날아 파라과이에 도착했다. 한국인 직원은 3명뿐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전부 파라과이 사람들이었다. 나는 인사말 정도의 스페인어밖에 구사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함께 파견 간 친구의 유창한 스페인어 구사능력 덕에 한 달을 버틸 수 있었다. 그곳에 도착해 가장 놀라웠던 건 우리 나라의 어느 가정집에서나 볼 수 있는 Kerasys샴푸가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느 상점에 가나 Kerasys를 판매하고 있었고 Kerasys샴푸만을 사용하는 살롱도 있었다. 매장 내에선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기초 스킨케어 제품, 색조 화장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곳에서 내가 담당했던 일은 현지인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제품을 설명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우선, 한국에서 들어온 화장품들의 사용설명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 현지 직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전공 과목을 들으며 익혔던 화장품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화장품의 성분과 효능을 정리했다. 그리고 함께 파견된 친구의 통번역을 통해 현지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기초 스킨케어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런 고객들을 위해 우리는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연회를 열었다. 페이스북을 통해 시연회 신청자를 받았고, 신청자는 모델부터 화장 전문가까지 다양했다. 나는 유튜브를 통해 보아왔던 기초 스킨케어 과정들을 응용해 손님들에게 직접 제품의 사용방법과 목적, 효능을 설명해줬다. 나는 한국에서는 화장품에 관심 있는 대학생 정도의 수준이지만, 아직 화장품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는 '앞서가는 뷰티 전문가'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인턴십을 하는 한 달 동안 최대한 많은 제품들을 그곳 직원들에게 알려주려 했고,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브랜드별 제품 설명서를 만들었다.

시차가 13시간이나 나는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나는 한 달 동안 한국 화장품의 가능성을 몸소 체험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얻었다.

지난 10월 열린 '글로벌 인턴십 유쾌한 두드림(Do Dream) 보고회'. 인턴십 참가 학생들의 경험담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월드옥타 인턴십에 참여한 허민 학생이 파라과이 소비자 대상 화장품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코트라 인턴십에 참여한 이한빈 학생이 시드니 무역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8월 H마트와 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 매년 50명의 학생을 1년 간 인턴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아주대와 CKP는 미국 공인회계사를 준비할 수 있는 1년 과정의 인턴십을 시작한다.

BMW 인턴십 참가자 강정호 학생이 독일 본사 건물 앞에서. BMW 인턴십은 한국에서 2달, 독일에서 3달 근무한다.

GERMANY

"도전, 젊음의 터닝포인트!"
황미라 산업공학 13

무더운 여름, 한껏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시작한 인턴십이 어느덧 5개월차를 달리고 있다. BMW인턴십은 내가 기대했던 혹은 걱정했던 것 그 이상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대학생활에서의 터닝포인트를 고르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BMW인턴십"이라고 말할 것이다.

한국과 독일 본사 두 회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나 자신을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업무도 일하는 방식도 비슷하지만 많이 달랐다. 한국에서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운영·관리하는 CRM팀에서 일했다. 딜러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 및 교육과 판매기회 관련 보고서 작성, 타 회사와 파트너십 기획 및 운영 참여 등 정말 다양한 업무에 깊게 관여할 수 있었다. 이 일들을 하면서 회사 내부의 여러 팀들, 딜러사들, 타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과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었다. 내가 맡은 일과 관련한 모든 미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 실무를 익히고 배우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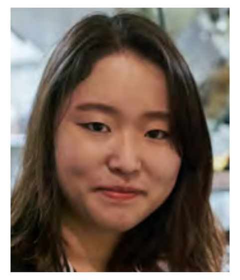
독일에서의 일은 한국과는 사뭇 달랐다. 독일에서는 Indirect Purchasing팀에 속해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사수가 없고 팀 내에서도 나만의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물론 팀 서포트도 한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내게 있고, 결과 또한 나의 성과가 된다. 더 많은 책임감이 따르게 되지만,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BMW Indirect Purchasing 부서 간 회의에서, 내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할 수 있었고 전세계 25개 마켓과 함께하는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도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인턴으로서 이 정도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독일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지금도 기분 좋은 부담감을 가지고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독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 기억에 가장 남는 일들 중 하나는 마케팅 팀에 캐스팅 당해 광고 오디션을 본 것이다. 실제 직원들을 모델로 해서 광고를 만드는데 아시아계 얼굴이 필요하다고 캐스팅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내 얼굴이 메인 페이지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

인턴십에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남들과 비슷한 일상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며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번 경험은 미래 진로 계획의 정말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기회가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고 있고 나는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도전을 망설이는 후배들,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기적을 원한다면 발가락부터 움직여라!"

U.S.A.

H MART



"넓게 봐야 기회가 크다!"
김수진 미디어 10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2년의 휴학 끝에 결정된 해외 인턴. 친구들은 물론 후배들까지 직장인이 되는 모습을 보며 '나만 너무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던 중 내린 결정이었고, 후회는 없다.

나는 북미 최대 아시안 마트를 운영하는 H마트 본사 디자인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유통 업계 디자인 부서의 업무에 대해 배우고 있다. 또 마케팅 부서와 디자인 부서 사이의 업무 절차와 소통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현장'을 깊이 경험하는 중이다. 광고지와 이벤트 포스터, 배너 등의 제작에 참여했는데 그것들을 신문이나 매장에서 봤을 때의 뿌듯함은 생각보다 컸다. 디자인실 내 다른 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경험도 해가고 있다.

인턴십 지원을 앞두고, 1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한국에서는 '온실 속 화초'였던 나는 부모님에게 금전적·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지냈다. 하지만 이곳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온전히 나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것 또한 인턴십을 잘했다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해외 인턴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영어'였는데, 직장동료가 한국인 혹은 히스패닉이 대부분인지라 업무 초반에는 불만도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영어로 해야하는 전화 응대, 우리 부서로 찾아온 손님 접대, 타 부서에 있는 외국인 동료와의 업무 진행 등 회사 내에서 '비즈니스 영어'를 사용하는 일들은 의외로 많았다. 또,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직장 동료와 함께 지내며 영어를 연습할 수도 있다. 나는 '미국'에 있지 않은가. 언어 교환, Meet-up 등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여니 여기 현지 친구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었다. 세계의 중심인 뉴욕 맨하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계인들이 극찬하는 박물관, 미술관도 다니며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나 대신 내 걱정을 사서 했던 내 지인들, 그리고 인턴십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I've already gotten used to living and working here. I think I'm doing really well. If you have a chance to go somewhere(not in Korea), then just do it. Don't care about others' thoughts. Live your life!"

* 유쾌한 반란-글로벌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기와 사진제공을 기다립니다.

파란학기제

아주대학교 도전학기 프로그램

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 두 번째 파란학기제 참가팀을 소개합니다

COMMUNITY 아주대와 지역 상권의 상생을 위한 커뮤니티 만들기
아주가치 — 최재석 전자공학과 10

MARKETING 마케팅 DMP(Data Management Platform, 데이터 관리 플랫폼) 제작
Maximizer — 최대복 물리학과 13

EXPORTATION 아프리카로 중고차 수출하기 프로젝트
보니자동차 — 이지헌 경영학과 11, 이용래 경영학과 12

COOPERATIVE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브랜드 창업, 가죽 상품 제조 및 판매까지
가죽 상품 제조 및 판매를 통한 협동조합 — 신현호 경영학과 12

START UP 스마트 자전거 잠금 디바이스 제작
LEAN — 현정호 기계공학과 11, 백요선 문화콘텐츠학과 11

EDUCATION 블럭코딩을 이용한 파이썬 교육 툴 제작
Precipe — 배현모 소프트웨어학과 12, 유재홍 소프트웨어학과 12, 김호영 미디어학과 12

SOFTWARE 웹스크래핑 서비스 개발 사람들의 일상에 도움 주는 SW 만들기
일상소프트 — 박형철 사이버보안학과 13

WEB SERVICE 공모전 및 프로젝트 팀원 구하기 웹 서비스 개발
Project Antenna — 허윤희 미디어학과 13

GAME 게임 제작 및 게임 페스티벌 출전
YOLO — 김지연 미디어학과 15

GAME 게임 제작 및 스팀 플랫폼을 통한 발매
파란게 프로젝트 — 김태훈 소프트웨어학과 12

GAME 4인 소규모 인디 게임 제작 및 출시, 수익 모델 창출을 통한 창업
Creams — 윤병준 미디어학과 11, 원민재 미디어학과 11, 주지훈 미디어학과 11, 김태환 미디어학과 11

GAME 3인 소규모 인디 게임 제작 및 출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수익 창출
끼룩끼룩 — 홍현진 미디어학과 12, 이상란 미디어학과 12, 최정민 미디어학과 13

ALGORISM 차량용 CCTV 영상 활용 알고리즘 개발
푸둥 — 전현기 전자공학과 09

YOUTUBE 유튜브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파란유튜버 — 이윤성 경영학과 10

YOUTUBE 게임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
팀스태그 — 이승훈 미디어학과 11

CONSTITUTION 시민헌법개정안 작성의 이론과 실제
시민의 헌법 — 최홍서 행정학과 14, 정윤희 행정학과 14

MEDICINE 유전체 항체 등 치료제 연구 및 특허출원
신약상품의 디자인설계 — 박진희 화학과 13

PATENT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효성분을 이용한 약학적 조성물 연구 및 특허출원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효성분을 이용한 약학적 조성물 연구 및 특허출원 — 김태규 응용화학생명공학과 14

STOCK 머신 러닝 기법을 통한 주가 예측
Machine — 성재동 금융공학과 11

BIG DATA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 상품 조사
브랜딩유 — 홍서희 산업공학과 13, 이경민 산업공학과 13, 임정은 산업공학과 13

FLEXIBLE Flexible 제품의 기업체 채택을 위한 이해와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공경유착 — 박규진 경영학과 13, 박찬문 경영학과 12, 신호준 신소재공학과 12

BUILDING 한국형 건자재 은행 도입방안 제시
두꺼비 — 한지우 산업공학과 12, 김송이 화학공학과 14, 오진섭 산업공학과 14, 한지민 전자공학과 10

CONTENTS g3pp 실험을 위한 vector제작 및 실험 콘텐츠 제작
요도염 — 김다운 생명과학과 13

INFORMATION 국가 지능정보산업 활성화 및 보안 강화 연구
Aisecurity — 박용훈 사이버보안학과 13, 김보민 사이버보안학과 13

VGLITE KhronosGroup의 OpenVGLite인증테스트 개발
Khronies — 강그루 미디어학과 11, 차은별 미디어학과 13, 이승철 소프트웨어학과 14, 김정현 소프트웨어학과 15, 김지환 소프트웨어학과 15, 홍지호 소프트웨어학과 15

DOCUMENTARY 노인의 일상과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메모리 팩토리 — 이동진 사회학과 12, 윤다진 사회학과 13, 김동주 심리학과 11

MARKETING 공연 기획부터 영상 및 음반 제작 콘텐츠 마케팅까지
GLOB — 이건웅 문화콘텐츠학과 15, 이정인 문화콘텐츠학과 15, 조동현 문화콘텐츠학과 12, 정원용 문화콘텐츠학과 16, 백수현 문화콘텐츠학과 16, 김성빈 불어불문학과 15, 송기원 심리학과 15

PERFORMANCE 대학생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 음원 제작 후 공연까지
ARTEL — 권창모 건설시스템공학과 09, 주진형 영어영문학과 11, 김준호 문화콘텐츠학과 12, 김장훈 문화콘텐츠학과 13, 안수민 문화콘텐츠학과 16, 배상아 문화콘텐츠학과 16, 조주원 문화콘텐츠학과 16, 문성진 문화콘텐츠학과 16, 이연주 문화콘텐츠학과 16, 박채림 문화콘텐츠학과 16, 정서연 문화콘텐츠학과 16, 박재영 문화콘텐츠학과 16

CONSTRUCTION 제로에너지 하우스(패시브하우스) 설계 및 시공
상상 — 김주현 건축학과 16, 송형호 건축학과 11, 안숙환 건축학과 12, 홍창기 건축학과 11, 신상훈 건축학과 11, 장재문 건축학과 11, 최정근 건축학과 16, 최현원 건축학과 14, 어윤범 건축학과 16, 장철현 건축학과 15, 오주희 건축학과 15, 정도혁 건축학과 15

SOCCER 수원삼성블루윙즈 축구단 직접 경험하기
도전! 스포츠마케터 — 김재민 문화콘텐츠학과 15

RESEARCH 가계부채 상환전략 연구 조직가치 및 개인행동 연구
CIRP — 김건호 심리학과 12, 김해빈 심리학과 14, 홍윤혜 심리학과 14

PARAN

도전하는 그 순간, 세상은 바뀌기 시작한다

'파란학기제 – 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은 아주대가 2016년 1학기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로 대학가에 파란을 일으켜왔다. 파란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도전해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에서 따왔다. '알(자신의 틀)을 깬다'라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겼다. 지난 1학기 첫 항해를 마친 데 이어 2학기에는 총 31개팀 86명의 학생들이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에 함께 했다.

교수 기고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의학과 빅데이터

박래웅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교수

아주대병원...세계 최초 의학자료CDM연구망 공개

4차 산업혁명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성과의 승자독식 막는 보편적 복지 등 정치적 해법 중요

신분당선이 개통되어 서울에 오갈 일이 있을 때 여간 편리한 게 아니다.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상할 수 있으니 일찍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 운전을 안 해도 되니 보고 싶은 책이나 논문을 볼 수 있어서 오가는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신분당선을 탈 때마다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제일 앞 칸에 운전석이 없다는 점이다. 무인 전철 운행이 기술적으로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늘 봐왔던 운전석이 없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영국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향후 20년 이내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텔레마케터, 접수 담당자, 회계사, 자동차 엔지니어, 소매업자, 보험 판매원, 운전기사 등을 열거하였고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직종으로 학자나 연구원, 교사, 의사, 법률가, 디자이너, 예술가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20년을 바라볼 것도 없이, 전철 운전사라는 직업은 이미 없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직업 운전사나 선박, 항공 조종사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최근 구글 번역기가 업데이트 되었는데, 이 마지막 문장을 구글 번역기에 넣어서 번역해 보았더니 "The job of a train driver is already gone. Most professional drivers, ships and airline pilots will follow"라고 번역된다. 꽤 괜찮은 번역이다. 이를 볼 때 번역가라는 직업도 곧 사라지게 될 것 같다. 어릴 때 상상만으로 즐거웠던 동시 통역기도 조만간 출시 될 것이고, 동시 통역사라는 직업도 곧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없어질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직업이라고 한 학자나 연구원, 교사, 의사, 엔지니어는 어떨까? 교육에 있어서도 코세라, 에드엑스(edX)와 같은 온라인 대규모 교육서비스인 무크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아주 의대에서도 코세라의 강의를 미리 듣고, 수업 중에는 토론만 하는 역진행수업(flipped learning)을 정식 교과목에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다. 관련 코세라의 강의를 직접 들어본 소감으로는, 개별 교육자가 그처럼 잘 구성된 강의를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다. 교육의 영역 중, '지식의 전달'이라는 부분은 향후 상당 부분 사라질 것 같다.

고도의 전문 지식과 사고를 필요로 하는 의학 연구에 있어 자동화는 가능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연구 자동화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특히 데이터 기반의 연구에 국한해서 살펴 보자면 ▲대량의 표준 데이터 ▲정교한 연구방법론 ▲분석 알고리즘과 플랫폼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연구에 필요한 임상자료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기관 외로 반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설령 임상데이터를 구한다고 해도,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기관마다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가 달라서 이들 데이터를 통합하여 자동화된 분석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임상정보를 연구에 적합한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이라는 형태로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의미를 갖도록 변환한 후에, 분석코드를 각 기관에 보낸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분석한 후에 그 결과 만을 모아서 최종 결과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상정보를 해당 기관 내에 두면서 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완전히 보호하면서도 국내외 여러 기관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국제 연구망으로는 오딧세이(OHDSI) 컨소시엄(http://www.ohdsi.org)이 가장 유명하다. 이미 12개국 53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6억6000만명의 임상정보가 CDM으로 변환되어 있다. 또 데이터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CDM에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개하면, 모든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CDM 형태의 임상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오딧세이 컨소시엄에서는 약 75종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깃허브(http://www.github.com/ohdsi/)를 통해 공동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22년간 진료한 약 230만명의 환자자료를 CDM으로 변환, 그 요약 자료(http://ami.ajou.ac.kr:8080)를 전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된 요약자료를 공개하되 원 자료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분석코드를 받아 기관 내에서 실행한 후, 분석되어 나온 결과만 연구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저자가 주도하여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축되어 있으며, 내년 중순이나 하반기에는 참여 기관의 임상자료가 CDM으로 변환 완료되어 여러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 병원의 임상자료를 이용하여 한가지 결과를 분석하는 전통적인 임상관찰연구는 현재 보통 6개월~1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CDM기반의 분산 연구망을 이용하면, 하나의 분석 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약물이나 진단명, 혹은 결과만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분석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기관에 걸쳐서, 수십 만 가지의 분석을 며칠 만에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관찰)연구의 자동화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학연구는 임상자료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실험자료, 오믹스 자료, 생체신호 및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과 결합되어야 좀 더 근본적인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관찰연구의 자동화만으로 모든 의학연구의 자동화가 가능하지는 않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임상자료의 표준화 및 공유에 이어서, 아주대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생성되는 모든 실시간 생체신호를 표준화하여 저장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생체신호는 sampling rate가 최대 250Hz정도 되는 매우 고해상도의 자료로 임상정보와 결합하면 환자의 심각한 상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유용한 알고리즘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확장하고 고도의 분석능력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연계하는 사람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이 될 것이다.

이런 여러 측면에서 보자면 향후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란, 기계화·자동화 시킬 가치가 없는 허드렛일이거나 예외가 너무 많아서 정형화 할 수 없는 일, 고도의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일, 예술과 스포츠, 따뜻한 인간의 감성을 필요로 하는 일 등이 될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상, 소수가 성과를 독차지하는 승자독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솔루션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또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정치적인 해법을 통하여 소수가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잡 쉐어링을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일하게 되거나, 혹은 보편적 무상복지 개념의 보편적 실업급여로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4차혁명의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내 정신의 고향에서 ②

영국에서 음악을 공부했던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대학교 지원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주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입학을 결정하게 됐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사람 돌보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공부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셨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학업'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셨지요. 저는 이 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베체트병학회 사무국에서 베체트병 환자 차트 DB화 작업,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참가자 등록에서부터 논문 초록 접수, 학술대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미 보건 의료계에 입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것은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을 돌이켜보면, 예체능만 공부했던 저에게 간호학이라는 학업이 매우 힘들었던 기억만 납니다. 물리학, 해부학, 병리학, 약리학 수업에서는 교수님의 언어가 한국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했었지요. 3-4학년의 임상 실습도 좋았지만, 건강증진 · 간호정보학 · 보건교육 · 간호관리학 같은 과목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흥미로워했던 저는 임상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저의 적성에 더 맞는 분야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저를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담임 교수님께서 저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덕분에 학부 생활 중에도 교수님께서 추진하셨던 건강증진, 노인보건, 만성병 관리, 방문 보건 등 다양한 지역보건사업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담임교수님이 저에게 '간호학은 너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2학년까지 얼마나 전과를 권유하셨던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졸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점수가 좋지 않아 교수님들께 염려도 많이 끼쳤고, 졸업 후에는 병원으로 취직하지 않아 학장님께서 직접 전화도 하셨지요.

지금 저는 '간호학' 전공을 살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외협력팀에서 국가 건강증진사업 · 정책 홍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국가 건강증진사업을 기술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지자체 금연사업 담당자 교육, 보건소 금연 클리닉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을 누볐습니다. 국가의 금연정책을 현장에 전달하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하고, 사업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렇지만 학부 수준의 전공지식만으로는 이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과정도 이수하였습니다. '성별 스트레스와 흡연의 관련성'이 저의 석사 논문 주제입니다. 어느 정도 건강증진 사업의 세계를 알아갈 때 즈음 저의 강점인 국제 업무와 그간의 금연 사업 업무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회원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2012년 제5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저는 FCTC 준비추진단(TF)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사국 총회는 전 세계 180여개 당사국의 금연 정책 담당자 1000여명이 모여 일주일간 회의를 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저는 그 일원으로 계획 수립, 사전 준비, 총회 실시 등의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국제 회의를 준비했던 덕분에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의 한 명으로 WHO 헤드쿼터에서 했던 여러 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금연의 날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이후 건강증진사업의 영역을 넓혀 절주 사업을 하며 샘 해밍턴을 주인공으로 하는 '진짜 사나이' 공익광고 제작에도 참여하였고, 지금은 대외협력팀에서 기관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면 우선적으로 병원에서의 임상경험을 쌓아야 하는 '규칙 아닌 규칙'을 스스로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공과 저만의 장점을 살려 스스로의 커리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려고 부단히 탐색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스승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겠지요.

아주대에서 보내는 학창 시절은 학업도 친구도 동아리도 중요하지만, 캠퍼스에는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넓은 혜안을 가진 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후배 여러분도 아주대에서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교수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간호학 전공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도, 졸업 후 직장생활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누군가의 말귀를 공유하며 우리의 모두의 인생을 응원해 봅니다!

배현임 간호학과 0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외협력팀 선임연구원

지혜는 늘 가까이 있어요

"아주의 바깥보다 아주의 안에서 깊어지길..."

Ajou Location Premium ③ - 강소기업으로 가자!

SAMHWA CROWN

큰 회사가 아닌 좋은 회사를!

김세중 산업공학과 07학번 삼화왕관

취업 '전쟁'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일 정도로 구직이 어려운 시대다. 많은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와 외국어 공부 등에 몰두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핵심에 있어야 할 '직장'이라는 곳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성찰은 정작 부족하기 쉽다. 이에 <아주인사이트>는 구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작지만 강한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동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 첫 번째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병마개 제조사 삼화왕관에 재직 중인 김세중 동문을 만나봤다.

지금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소개해 준다면?

생산관리 스태프로서 생산활동 전반에 관여하며 제품 생산과 관련된 설비와 인력,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입사 전과 지금, 회사와 직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대학 시절 생각했던 것과 실제 기업에 들어와 일을 하며 느낀 것에 많은 차이가 있다. 산업공학을 전공했던 대학 시절에는 '생산 관리'라는 직무가 단순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거시적 관점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해보니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문제 없이 고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산 관리자로서의 최우선 과제임을 깨달았다. 즉,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전반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꼼꼼함'이 중요한 덕목이라는 얘기다.

강소기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조직 내 소통이 원활하고 직원 개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일 처리를 위한 절차상 불필요한 과정이 많지 않아,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다. 보통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틈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업들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노력한다면, 본인이 속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취업준비를 하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먼저 확립하는 게 좋겠다.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연봉이라는 지표로 우선순위를 삼고 있다. 하지만 경험해보니 근무지나 근무 강도, 적성 등이 실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연봉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좋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 보다 어떤 직종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취업 준비를 할 때에 나에게도 그런 말은 별로 와 닿지가 않았었다. 간과하기 쉽고,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생각이기도 했다. 회사는 옮길 수가 있지만 직종과 직무는 커리어의 시작점이다. 후배들이 스스로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배웠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삼화왕관은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병마개 제조회사로 코스피 상장사다. 일반음료, 주류 및 식품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병마개를 연 60억개 이상 생산하며, 중국 등 20여개국에 수출한다. 200여명의 직원이 재직 중.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전공 소개 - 나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①

소프트웨어학과

강경란 교수

벌써 30년도 전의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께서 "컴퓨터 동아리"를 만드셨습니다. 멋도 모르고 20년 후에 컴퓨터 박사가 될 것이라고 쓴 일기 덕분에 초기 회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컴퓨터의 인연은 시작되어 대학을 컴퓨터 관련 학과로 진학하게 되었고, 정부 출연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거쳐 현재는 소프트웨어학과 교수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를 통해 완성해 낸다는 점에서 참으로 통쾌하고 기분 좋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0과 1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컴퓨터가 완수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하는 것이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사고 체계와 유사한 듯 다르기 때문에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예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성취감은 더욱 크고 짜릿하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하나, 스스로 무언가 만들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주저함이 없다.

깨어있고자 하는 젊음이라면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학문을

모든 공학 분야가 그렇듯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졸업 후에도 꾸준히 기술의 변화와 발전을 살피고 익히고자 해야 하겠지요. 둘, 열정적이며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분야도 점점 확대되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규모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팀원으로서 또 리더로서 열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기를 좋아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에게 잘 지시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논리적으로, 동시에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 미래의 사회를 상상하며 사람들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요즘 핫 키워드인 "4차 산업 혁명"은 소프트웨어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래 사회에 소프트웨어가 끼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려면 개발자가 늘 깨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지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제가 그 동안 읽었던 책 중에 두 권을 추천합니다.

소프트웨어학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강경란 교수의 추천서

첫 번째 책은 미국의 존 맥코믹 교수님이 2012년에 쓴 <미래를 바꾼 아홉 가지 알고리즘(Nine Algorithms that Changed the Future)>라는 책입니다. 작년에 1학년생 대상 전공 과목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흥미와 비전을 갖게 할 요량으로 관련 도서를 찾다가 발견한 책입니다. 제 자신도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가 세상에 끼친 영향이 컸던 아이디어 아홉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검색 엔진의 인덱싱 ▲구글의 페이지 랭크 ▲공개 키 암호 ▲오류 정정 코드 ▲패턴 인식 ▲데이터 압축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서명 ▲계산가능성과 결정 불가능성 등입니다. 저자가 컴퓨터공학 분야의 전문가이어서, 기술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 소프트웨어 분야 전공 지식이 없더라도 찬찬히 읽어 나가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궁금한 학생에게 입문도서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어떤 분야가 중요할까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셋째, 소프트웨어학과에 가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책에서 잘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학과에서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을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꼬옥 한 번 차분하게 시간을 내어 읽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은 한겨레 기자인 구본권 소장(사람과디지털연구소)이 2015년에 쓴 <로봇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로부터 선물로 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요즘 회자되는 단어들이 들어 있어서 책을 받은 그 자리에서부터 읽기 시작하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그저 기술의 발전만 따라가고 있던 연구자인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알고리즘 윤리학 ▲언어의 문화사 ▲지식의 사회학 ▲일자리의 경제학 ▲여가의 인문학 ▲관계의 심리학 ▲인공지능 과학 ▲호기심의 인류학 ▲망각의 철학 ▲디지털 문법 등의 세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분이 아닙니다. 학사과정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박사학위는 언론학이 전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자의 관점에서보다는 기술 사용자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조금은 냉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가 "분홍빛"만은 아닐 것이므로 미래의 기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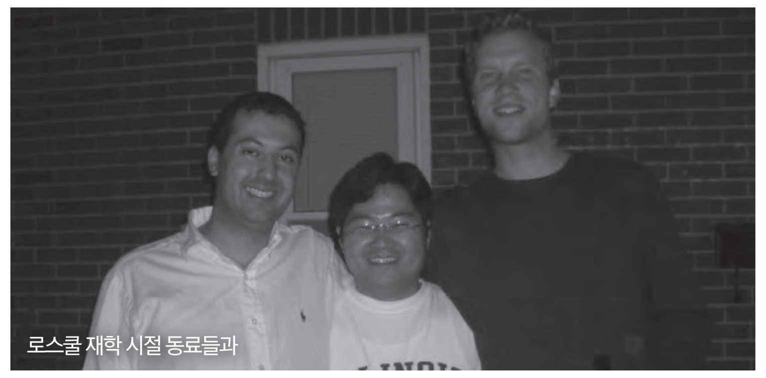
이 책은 두 가지 이유에서 추천합니다. 소프트웨어 전공자에게는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비전공자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 사고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 외에도 미래 사회를 그리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맞추어 달려가려고 하면 숨이 차서 제대로 서 있지 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책을 한 권 정도는 꼬옥 접해 보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나의 자리 매김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앞서 얘기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계발하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Global Alumni Message

Los Angeles California

Live Your Life!


로스쿨 재학 시절 동료들과

뉴욕주 변호사 선서식 후

법학과 91학번 **김형걸**

Lee&Oh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형걸 동문은 미국에서 10여년을 활동해온 변호사다. 1991년 아주대 법학과에 입학해 2005년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그는 '힘을 가진 사람' 보다는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김 동문은 1991년 아주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1985년 신설된 학과였기에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이 적었고, 사법시험 합격자도 없었다. 교수들도 이제 막 강단에 선 새내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지만 열정만은 대단했다. 선후배와 교수들이 똘똘 뭉쳤고 학교 생활은 늘 정겹고 따뜻했다.

"그 시절 아주대는 정말 젊었다. 전통과 선례가 없었기에 오히려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커졌다. 내가 잘 되어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어줘야겠다는 마음이 컸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으로 믿었다."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김 동문은 졸업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원을 마치기 전까지 사법고시에 합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자신감이 바닥을 쳤다. 그리고 떠난 캐나다 여행에서 스스로를 돌아봤다. '힘을 가진 사람' 보다는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가슴 한 켠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었다. 그 길로 일리노이주립대학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다. 학업을 마치던 2005년에는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소원하던 변호사의 꿈을 이뤘다. 해외 무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그는 이렇게 조언한다.

"Don't be afraid. Never! Be yourself. Live your life.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라. 선택한 뒤에는 두려워 말고 자신 있게 나아가라."

김 동문은 이민법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그 소임을 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로 법률 서비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 스스로의 경험과 실패, 성공 스토리를 글로 담아내 많은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글 쓰는 변호사'로서 그의 여정을 기대해 본다.

손석희

Special Lecture 진로박람회 특강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

문제 의식 좋아야 문제 해결 돼

지난 9월24일 아주대학교 다산관 강당에서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인문대학이 주최한 <인문인 진로 박람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특강에는 250여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 남짓 이어진 특강을 아주인사이트가 따라가 봤다.

정리 이솔(브랜드전략실)

손석희 사장은 텔레비전의 태동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디어의 발전과 진화에 대한 진단과 고민으로 자연스레 이야기가 옮아갔다. 최근 몇 년 사이 모바일 기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대중의 미디어 콘텐츠 수용 방식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 과거와 같이 대중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 휴대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 사장은 달라진 환경에 대처하는 미디어 종사자로서의 고민을 토로하며, 앞서가는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으로 '전문성'을 꼽았다.

"'저널리스트들이 유일한 전문가였던 시대는 갔다'라고 영국 유력지 가디언(The Guardian)의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전문가인 시대죠. 미디어 종사자에게 더 깊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어간 뉴스'를 지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정보를 종합해 전달하는 뉴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에 더해 어젠다 키핑(agenda keeping)을 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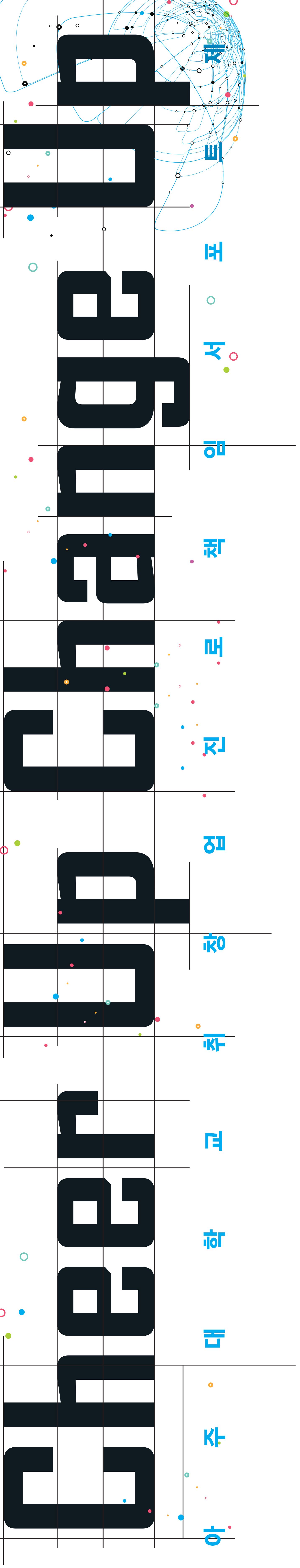
1984년부터 아나운서와 기자, 앵커로 활약하며 '신뢰 가는 언론인'의 대명사로 꼽히는 손 사장에게 언론 지망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하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언론사에 입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그가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구했습니다. 다만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방송반 활동을 하며 무척 즐거웠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추천도 있었고요. 이 길을 걸으면서 지겹거나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 '직업'이고, 늘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왔습니다."

손 사장은 '진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입사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진심'을 다해 임한다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장벽이라는 설명이다.

"입사 지원서에 담긴 진심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몸으로 직접 경험한 것에만 진심이 담깁니다. 일상 생활에서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왔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의식해야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지요."

眞 心



젊음에새길을–
사회에큰길을–

아주대학교
< Cheer UP Change UP >
프로젝트

졸업장 수여로 대학의 할 일은
끝나는 걸까요?
아주대학교는 진로의 분명한 길을 열어주는
것 까지가 대학의 과정이자 책무라 믿고
'취 · 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경험이
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대학을 바꾸는 대학–
아주대학교가 먼저 시작합니다.

취업 Cheer Up
창업 Change Up
PROJECT
취·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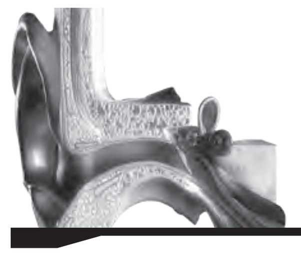
RESEARCH NEWS

*사진의 일부는 참고자료용 이미지입니다.

Connexin 43 Acts as a Proapoptotic Modulator in Cisplatin-Induced Auditory Cell Death

정연훈 교수팀,
항암제 부작용 해결 실마리 제시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연훈 교수(이비인후과학교실) 연구팀이 위암 · 간암 · 유방암 · 두경부암 · 뇌종양 등의 암 환자에게 널리 쓰이는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부작용인 청력손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정연훈 교수와 김연주 연구강사는 감초 뿌리에서 추출한 카베녹솔론 성분을 시스플라틴과 함께 생쥐 실험군에 투여하면 청력이 정상 수준으로 보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 교수팀이 시스플라틴만 주사한 생쥐 실험군은 청력이 중도난청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시스플라틴과 카베녹솔론을 복강에 함께 투여한 생쥐는 정상 수준의 청력을 유지했다.
시스플라틴으로 치료 중인 암환자들의 경우 25~40데시빌의 소리를 못 듣는 중도 난청자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25~40데시빌은 청력이 정상인 사람들이라면 무리 없이 듣는 수준이다.
정연훈 교수는 "이번 논문은 간극결합 조절약물을 통해 난청을 예방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보고한 것"이라며 "시스플라틴 항암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청력소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팀의 연구결과가 담긴 논문 '시스플라틴에 의한 난청 부작용에서 코넥신43 단백의 역할'은 생화학 · 분자생물학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활성산소학회지(ARS · Antioxidants & Redox Signaling>' 10월호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Shape Changing Thin Films Powered by DNA Hybrid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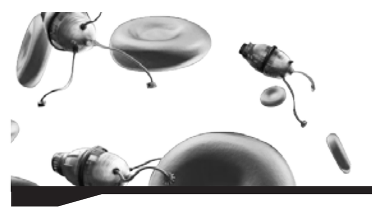
심태섭 교수,
DNA정보 이용해 구동하는 초소형미세로봇 기술 개발
화학공학과

심태섭 교수(화학공학과)가 참여한 연구팀이 DNA를 이용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미세로봇을 개발했다.

관련 내용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10월24일자에 게재.

심태섭 교수, 박소정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한 한국 연구팀과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소속 이대연, 존 크로커 교수팀은 공동으로 인공 DNA의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해 연성재질 미세로봇을 구동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심태섭 교수는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성재질 미세로봇은 나노입자나 고분자와 같은 유연한 재료로 만든 로봇을 말한다. 체내 혈관과 같이 매우 작고 복잡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으며, 특정 전기적 신호와 물리적 · 화학적 자극에 의해 작동한다. 하지만 미세로봇은 복잡한 명령은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DNA의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해 움직임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미세로봇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DNA가 단일가닥일 때와 결합 후 이중나선구조를 가질 때 나타나는 DNA 분자 길이를 주목했다. 분자 길이가 달라지면 결국 물질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등의 구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서다. 연구팀은 염기서열 정보 조작을 통해 제작한 DNA를 금 나노입자에 붙이고 DNA 결합을 통해 DNA–금나노입자 구조체를 제작했다. 해당 구조는 미리 조작된 염기서열 정보를 갖는 단일가닥 DNA를 가지고 있어 해당 정보에 꼭 맞는 염기서열을 갖는 DNA와 결합, 이중나선구조를 형성하도록 했다. 더불어 두 개의 서로 다른 염기서열 정보를 갖는 DNA를 도입해 두 개의 DNA에 의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미세구조체를 제작했다. 덕분에 말거나 뒤집는 등의 기계적 작동이 가능해졌다.
심태섭 교수는 "0과1의 2진수로 제어하는 컴퓨터와 달리 A와 T,G,C 4진수의 정보를 갖는 DNA를 통해 구동을 제어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앞으로 DNA를 통한 제어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약물 전달이나 혈관 확장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정교한 구동이 가능한 미세로봇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미국국립과학재단(NSF) 재료연구과학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



Prof. Kim's team achieved technical transfer of Bio-Plasma

김철호 교수,
'액상 바이오플라즈마' 기술 이전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김철호 교수(이비인후과학교실)가 보유하고 있는 '액상 바이오플라즈마를 이용한 창상 치료기술'이 1억원에 플라즈마 관련 민간기업으로 기술 이전됐다.
이번에 기술이전한 '액상 바이오플라즈마 이용 창상 치료기술'이란 만성질환이나 노령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창상(감염, 피부염, 욕창, 당뇨발, 화상 등)에 액상 바이오플라즈마를 이용, 유해물질과 세균 등을 제거하고 정상 세포를 둘러싼 미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절해 치료하는 기술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한 액상 바이오플라즈마는 실제 의료용에 적합하도록 상온 상압 환경에서 발생된 플라즈마를 액상형태로 만든 것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치료법이다. 김 교수팀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 의학 · 첨단과학기술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철호 교수는 지난 2013년 '저온 상압 플라즈마의 치료기술'을 1억원에 이전한 이후 두 번째로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Ajou Quarterly Magazine 2016 Winter Renewal Vol.6

NEWS

대학평가에서 좋은 성적 이어져

2016 대학평가 13위 기록

3↑ 단계 상승 · 대학평가순위

6↑ 단계 상승 · 교육여건

11↑ 단계 상승 · 학생 교육 및 성과

5↑ 단계 상승 · 평판도

학생 교육 및 성과, 창업 교육, 현장 실습 항목 급상승 '유쾌한반란 글로벌인턴십', "AFTER YOU 프로그램" 등 높이 평가된 듯

아주대학교가 국내외 기관들이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중앙일보 2016 대학평가'에서 아주대는 서울시립대와 공동 1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6위에서 3계단 상승한 순위다. 아주대는 평가점수에서 총점 172점을 기록해 바로 아래 순위인 15위 건국대(서울)의 총점 163점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비해 앞선 12위 서강대(175점)와 10위 한국외대 · 인하대(177점)와의 격차는 각각 3점, 5점으로 크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전국 4년제 대학 69곳을 대상으로 대학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는 ▲교육여건(100점) ▲교수연구(100점) ▲학생 교육 및 성과(70점) ▲평판도(30점) 4개 부문 33개 지표로 나뉘어 진행됐다.
아주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여건 부문에서 지난해 대비 6계단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 교육여건은 교수 확보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강의 규모, 전임교원 강의 비율, 교환학생 비율 등을 지표로 구성된다. 학생 교육 및 성과 부문에서는 전년 보다 11계단 상승한 7위를, 평판도 부문에서는 5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학생 교육 및 성과부문의 세부 항목인 ▲창업교육 참여율 ▲현장 실습 참여율 점수가 큰 폭 올랐다. 창업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52위에서 올해 9위로 뛰어 올랐고, 현장실습 참여율은 지난해 59위에서 11위로 대폭 상승했다. 아주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월드옥타(World-OK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BMW, 미국 CKP 및 H마트와의 학생 인턴십, 창업 교육 등이 이 같은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아주대는 로이터통신이 발표한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평가에서 22위를 차지했다. 국내 대학 가운데는 9위다. 로이터는 발표된 학술 논문의 수와 특허 출원 건수 등을 기준으로 아시아 대학 75개를 평가했다.

EVENT

미래전투체계네트워크 기술 특화연구센터 개소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미래전투체계네트워크 기술 특화연구센터(센터장 임재성)'가 11월10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행사는 특화연구센터 개소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 연구센터 위촉장 수여, 김동연 총장 환영사,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김인호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축사, 특화연구센터 소개, 현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의 국방연구개발 참여를 유도하고자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를 선정해 특화연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화연구센터에서는 앞으로 아주대를 중심으로 국내 학계의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을 결집, 국방 분야 응용 연구에 필요한 원천 기술 및 인적 역량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주대가 주도하는 특화연구센터에는 고려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숭실대 등 13개 학교가 함께 참여한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특화연구센터에 2022년까지 6년간 111억원을 투입해 유 · 무인 전투체계를 연결하는 전송체계와 적의 통신 교란에 대응하는 통신신호처리, 미래 전장대비를 위한 신 매체 전송기술 등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전술네트워크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VENT

연구마을 19개 기업 입촌식 열려

중소기업청

아주대학교는 지난 9월2일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연구마을 입촌식'을 개최했다. 연구마을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대학에 설치, 기업과 교수가 함께 캠퍼스 내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아주대는 올 초 중소기업청 발표 연구마을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9개 기업과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약 15억9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게 됐다. 사업기간은 최장 2년이다.
연구마을은 캠퍼스플라자 건물에 연면적 911㎡ 규모로 조성됐다. 연구개발 지원,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화 지원 등에 유리하도록 집적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며 연구과제들은 아주대 교수들과 각각 연계되어 있다.
입촌식에 참석한 김동연 총장은 "연구마을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WARD & SELECTION

박형주 석좌교수, 대한수학회 디아이수학자상

박형주 수학과 석좌교수(현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가 대한수학회 '2016 디아이 수학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탁월한 업적으로 한국 수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적으로 수학계 위상을 높여 학계 발전에 기여한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대한수학회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박 교수를 비롯한 올해 대한수학회상 수상자들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10월2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박형주 교수는 '2014년 서울 세계수학자대회' 유치위원장으로서 서울에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박 교수는 또 국제수학연맹의 최초 한국인 집행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NEWS

EVENT

월드옥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여

World-Okta

아주대가 지난 10월4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월드옥타(World-OKTA)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했다. 대회에는 전 세계 140여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월드옥타 회원 800여명이 참가했다. 아주대 김동연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월드옥타 소속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대회에 함께 했다.
아주대 링크사업팀은 월드옥타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링크사업팀은 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가족회사 제도 ▲현장실습 연계형 기업지원 사업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캠퍼스 자산실용화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아주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있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가족기업들은 대회 기간 동안 수출상품 전시회에 참여했다. 참여기업 8곳은 총 26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실제 수출계약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대회 기간 중 열린 '2016 라이징스타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아주대 조정훈(화학공학과) 학생이 소속된 HappyNewEar팀이 참가, 1위에 올라 4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EVENT

미주개발은행과 협약체결, 학생 인턴십 파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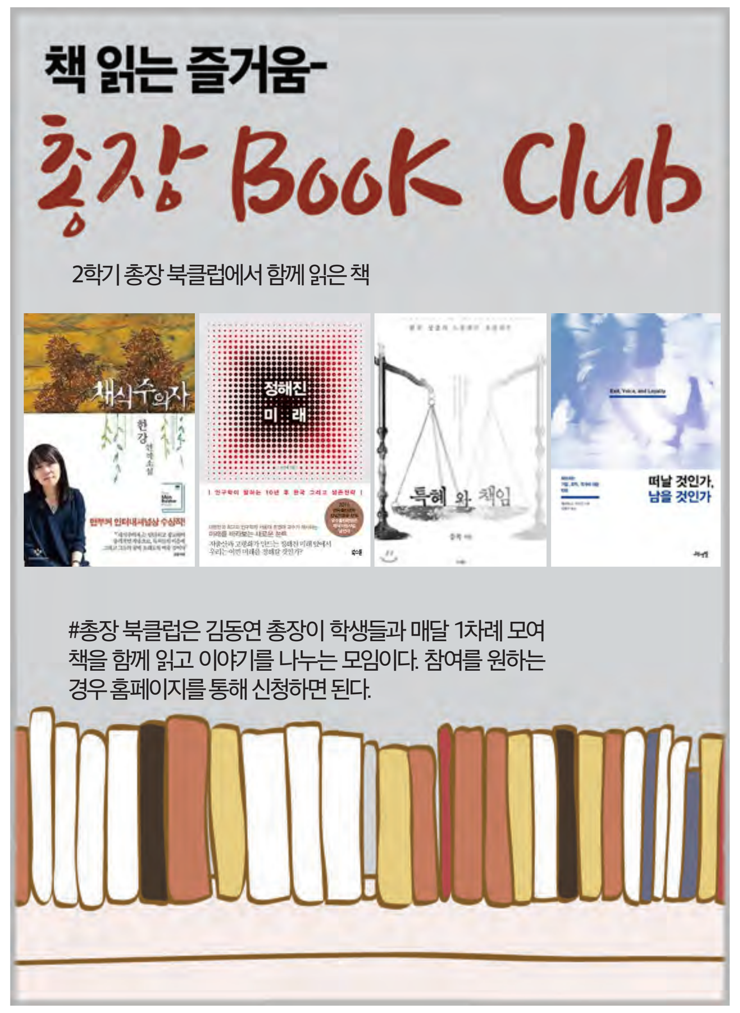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아주대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11월8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맺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는 아주대가 국제기구와 맺은 첫 번째 MOU다.
양 측은 ▲아주대 재학생들의 인턴 파견(여름, 겨울 각 2명의 인턴 파견) ▲중남미 국가들의 파견교육 유치 협조 ▲중남미 국가 대학생들을 위한 국내연수(Inbound AFTER YOU)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식에 이어 30여명의 국내외 재학생들을 초청해 국제 기구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IDB 대표단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날 설명회는 아주대 김동연 총장과 IDB 아나 마리아 국장이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IDB 소개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중남미 국가 현안과 과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EVENT

국제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국제대학원(원장 임재익)이 '국제화 이후 국가의 역할(Making Sates Work in a World after Globalization)'이라는 주제로 개원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을 11월18일 개최했다.
박재창 한국외국어대학 석좌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제1세션과 국제대학원 재학생들이 참가한 제2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공석기(서울대 아시아센터) 교수와 Gilbert Tanwie(고려대 국제관계학) 박사가 발표자로 나섰고, 허태욱(카이스트) 교수와 Erhan Atay(터키 Suleyman Sah University)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카메룬,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적의 국제대학원 학생들이 발표를 이어갔다.
임재익 원장은 "국제대학원 동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정부와 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국제대학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PEOPLE

'총장과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 시작

'Cheer up Change up(취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총장과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이 11월7일 처음으로 진행됐다.
멘토링은 인생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의 사전 신청을 접수해 진행된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참여할 수 있다. 멘토링은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들을 시작으로 인문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멘토링에는 사회과학대학 학생 6명이 3명씩 2개조를 이뤄 참여했다. 이날 멘토링은 참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김 총장과 신청 학생들 그리고 담당 컨설턴트만 상담실에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동연 총장은 "Cheer up Change up은 학생들의 진로와 사회 진출에 대해 학교가 '공동책임'지자는 생각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며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는 마음에서 총장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AWARD & SELECTION

김주민 교수, 한국화학공학회 '범석논문상' 수상

김주민 교수(화학공학과 ·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가 한국화학공학회에서 수여하는 '범석논문상'을 받았다. 범석논문상은 한국화학공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만 45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주는 상이다.
김주민 교수는 한국화학공학회 발행 영문 학술지에 <관성 혹은 점탄성 유동하에서 세포의 변형성 분석에 적용 가능한 십자형 미세유로의 특성 분석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관성 혹은 점탄성 유동을 적용한 십자형 미세유로의 경우 유동 조건에 따라 십자형 미세유로 내에서 유동의 균일한 정도가 많이 달라 질 수 있음을 규명했다"며 "세포 변형성 분석을 위한 미세유체소자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지난 19일 열린 한국화학공학회 평의원회의에서 진행됐다. 한국화학공학회는 1962년 설립된 학회로 관련 연구자 5000여명이 소속되어 있다.

AWARD & SELECTION

황동선 교수,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과제 선정

황동선(수학과) 교수가 응모한 연구과제가 2016년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하반기 지원과제 기초과학분야에 선정됐다. 황 교수는 <Q-호몰로지 사영평면의 분류와 그 응용> 연구를 진행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완료된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나 연구진의 역량, 향후 계획의 독창성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연구 지원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래 산업을 주도할 소재기술과 차세대 ICT 분야 연구를 주로 지원한다. 삼성은 2013년부터 10년 간 272개 과제에 대해 1조5000억원을 출연했다.
올 하반기에는 아주대 황동선 교수의 과제를 포함해 기초과학, 소재기술, ICT 분야에서 총 28개 연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AWARD & SELECTION

최권영 교수팀, CJ제일제당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

최권영(환경안전공학과) 교수가 CJ제일제당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CJ Global Grant Program(CGP)'에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지난 7월 한 달간 전 세계의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모, 국내외에서 총 2팀을 선정했다. 최 교수팀이 국내에서 선정된 1팀이다.
CGP는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연구개발 분야에서 유망한 미래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다. 최권영 교수는 CGP에서 제시한 두 가지 연구분야 중 '아미노산(amino acids)과 아미노산유도체(amino acid derivatives)의 미래 활용' 분야에 연구과제를 제시해 최종 선정됐다.
CGP는 선정 과제에 대해 연간 최대 10만달러씩 최대 2년간 연구비를 지원한다.

NEWS

EVENT

상해교통대와 제1차 '한중 통일학술대회'

아주대와 상해교통대가 지난 10월26일 중국 상해에서 '한반도 통일의 평화협력과 교류(Peaceful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 Korean Unification)'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총장과 학교 관계자, 류길재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한중 양국의 통일 전문가가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는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와 상해교통대 한국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BMW Korea가 후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1월 아주대와 상해교통대 간 체결된 MOU에 따라 진행됐다. 양 교는 앞으로 제2차 학술대회를 갖는 등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학술교류 협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아주대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지역통일 교육센터'에 동시에 선정된 유일한 기관으로 통일 관련 교육과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EVENT

대학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2016년 대학역량강화워크숍이 11월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KB인재니움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동연 총장과 최경희 산학부총장, 장중순 대학원장을 비롯해 각 단과대학 학장과 처장단, 학과장들이 참여했다.
첫날 진행된 토의에서는 박호환 경영대학 학장과 김현정 기계공학과 학과장이 발표를 맡았다. 박호환 경영대학 학장은 장학금 지급률과 취업률 확대방안, 연구지원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경영대학의 실행 과제를 설명했다. 기계공학과 김현정 학과장은 "선도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 기계공학과의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참석자들이 ▲학과 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튿날에는 대학의 미래 환경변화와 우리 대학의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 재정 정책 ▲평가 대응 전략 ▲수요자 중심 입학 정책 ▲국제화 방안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VENT

총장·주니어 교수 간담회 열려

'총장-주니어 교수 간담회'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간담회는 주니어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 겪는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 발전에 대해 진솔하게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10월24일 1차, 11월10일을 2차 총2회에 걸쳐 간담회가 열렸다. 조교수, 부교수 가운데 30여명이 참여했다. 2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강의평가 ▲부서 간의 협력 ▲연구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의견개진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동연 총장은 "칭찬할 일은 칭찬하고,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자"며 "다양한 의견을 언제든지 이야기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

PEOPLE

우즈벡 학생 10명 첫 "인바운드 AFTER YOU" 장학

첫 "인바운드(Inbound) AFTER YOU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주대에서 공부하게 된 우즈베키스탄 UWED(The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소속 학생들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9월8일 진행됐다. 아주대의 자매 대학인 UWED 학생 10명은 올 2학기 아주대에서 수학하게 된다. 학교는 "AFTER YOU 프로그램"에 담긴 사회적 이동성 제고라는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학생들의 해외 파견을 넘어 해외 학생을 아주대로 초청하는 "인바운드 AFTER YOU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한다. 이번에 그 첫 참가자로 선발된 UWED 학생들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에 경영학과에서 수학할 요쿠보브 압둘라지즈(YOKUBOV ABDULAZIZ)를 비롯한 UWED 학생 10명이 올 2학기 교환학생 형태로 머무르게 된다.
UWED는 지난 1992년 설립된 대학으로 국제관계와 국제법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다. 아주대와는 지난 2005년 MOU를 체결했다.

AWARD & SELECTION

공학교육인증 2020년까지 연장

ABEEK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아주대 공과대학과 정보통신대학의 9개 프로그램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2020년 2월까지 유효한 공학교육인증(ABEEK)을 받았다. 이번 인증은 지난 2013년 정규인증을 획득한 이후 3년 안에 받도록 되어 있는 중간방문 평가 결과다.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공과대학의 기계공학, 산업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건설시스템공학, 건축공학 6개와 정보통신대학의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융합공학 3개다. 공학교육인증은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평가, 교과영역, 학생, 교수진, 교육환경, 교육개선 등 8개 항목을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된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 현지 대학 졸업생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사 응시 자격도 주어진다.

AWARD & SELECTION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대통령 표창

아주대가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개막식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야'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아주대는 1992년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한 이후 창업보육센터, 기업지원센터, 기술이전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등을 개소했으며 구축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및 연구분야 협력사업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에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26건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37건의 지적재산권과 43건의 기술사업화를 성공시킨 성과가 주요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듣다

"아주대-강남-판교-동탄의 글로벌급 산학연 생태계 더 높이 활용해 세계적 대학으로 달릴 것"

이주연 산업공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가상현실, 드론,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등은 국내외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유망 신산업이다. 앞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올 산업 분야임이 분명하지만, 여러 규제나 제약에 발이 묶여 발전이 더딘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산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직접 해결해주는 '고충처리위원'의 역할을 하는 것. 지난해 1월부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이주연 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신산업 융합 기술의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국가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여러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규제 개혁 등 이슈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산업계를 대변하는 고충처리위원이라고 보면 된다. 주요 활동으로 ▲고충처리 상담창구 운용 ▲현장중심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기업 방문) ▲산업 융합 촉진 범부처 워크숍 주관 ▲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한 안건 상정 ▲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한 협력 강화(정부 및 관련 기관)등이 있다.

Q 산·학·연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2014년 아주대에 부임하기 전 산업계에서 27년 간 근무(Oracle 상무, SK C&C 상무, 포스코ICT 전무)했다. 아주대는 광교-판교-동탄에 걸친 글로벌 산학연 협력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원활한 협업을 돕기 위해 올해 3월에 '신산업융합기술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분야 간 협업연구, 학제 간 융합연구, 산학 간 공동연구, 학연 간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대형 R&D 프로젝트를 3건을 수주했다.

Q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기업을 경영하듯이 인생을 경영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기업을 경영할 때 조직적으로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해 관리를 하는데 반해, 개인의 인생 설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기를, 열정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

POSTER NEWS

국제협력처

공공정책대학원

LINC사업단

EVENT

공공정책대학원, 수원시 공무원 대상 '공직자 기자학교' 열어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공공정책대학원이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기자학교'를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사이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80명의 공무원이 참가했다. 교육은 지난 9월19일 시작되어 한 달 동안 계속됐다.
교육은 ▲지방 정부 PR의 전략적 중요성과 공공언어의 활용 ▲보도자료의 전략적 기획 및 활용방안 ▲SNS 등을 활용한 전략적 정책 홍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아주대 교수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시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기자학교'는 공직자들이 공공언어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보도자료와 SNS 등의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EVENT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간호대학이 지난 10월31일 종합관 대강당에서 제1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서식에서 간수진 학생을 비롯한 70명의 간호대학 학생들은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환자에게 헌신하고 참다운 의료인으로 거듭날 것을 맹세했다.
유문숙 간호대학 학장은 "내년부터 여러분은 임상실습을 통해 처음으로 환자를 만나게 된다"며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다짐을 잊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멋진 간호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간호 원칙을 담은 내용을 간호학도들이 맹세하는 의식이다. 간호학도들이 든 촛불은 주변을 비추는 봉사와 희생 정신을, 흰색 가운은 이웃을 따뜻하게 돌보는 간호정신을 상징한다.

EVENT

인문대학 '진로박람회', 직종별 선배와의 대화

인문대학이 주최한 <인문인 진로박람회>가 지난 9월24일 다산관에서 열렸다. 인문대학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당일 오전에는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손 사장은 ▲미디어의 발전과 현 상황 ▲미디어 종사자에게 필요한 덕목 등에 대해 강연했다. 손 사장의 강연 후에는 청중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인문대학 졸업생들이 직접 참석해 직종별로 후배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30명의 졸업생들이 ▲공무원/공공기관 ▲방송 ▲콘텐츠 ▲출판 ▲유통 ▲서비스 ▲교사/대학원 진학으로 나뉘어 직종별로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행사 이후에는 선배와 후배, 인문대 교수진이 참석한 비어파티가 이어졌다.

AWARD & SELECTION

전세진 교수, 스프링거 우수논문상 수상

전세진(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세계 최대 학술출판사 중 하나인 스프링거(Springer)사에서 수여하는 우수 논문상(Best Papers Award)을 받았다. 수상논문은 2015년 9월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aterials>에 게재된 'Estimation of Friction Coefficient Using Smart Strand'이다.
이 논문은 기존 전기 저항식 센서에 비해 획기적으로 정확도를 향상시킨 광섬유 센서가 삽입된 강연선을 이용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변형 특성을 예측하고, 구조 설계 시 마찰계수 등 중요한 인자들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길이가 20m인 실험체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다루고 있지만, 현재는 60m 길이의 실제 교량에 적용해 단기 및 장기 구조 거동을 예측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파란학기 참가 인디 게임팀, 안양시 주최 공모전 대상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학과 학생들이 '2016 안양 스마트콘텐츠 슈퍼루키 공모전' 인디 게임 부문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RPG RUN'이란 게임으로 윤병준, 원민재, 주지훈, 김태환 학생이 팀을 이뤄 제작한 게임이다. 이들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인디 게임 제작을 주제로 파란학기에 참여하고 있다.
공모전은 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한국교육방송(EBS)가 주관한 대회로 인디게임 개발과 VR/AR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상을 받은 'RPG RUN'팀은 안양시장상과 함께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RPG RUN'은 캐릭터가 몬스터들의 공격을 피해 미로를 따라 도망을 다니다 미궁을 탈출한다는 내용이다. 속도감, 다양한 아이템, 간편한 조작 등이 장점이다.

AWARD & SELECTION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건축공학과 학생팀 대상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전국대학생학술발표대회에서 경진대회 부문 대상(국토부장관상)을 받았다. 대회는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최했으며 지난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인하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학생들은 김재현, 김의준, 이수연, 양진웅, 이연주 학생으로 건축공학과 건설관리연구소학회(FACE) 소속이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논문 포스터와 경진대회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대회 부문은 아이디어, 원가관리, 공정관리, PBL 총 4개 분야다. 아주대 학생들은 경진대회 아이디어 부문에 참가했다.
아주대 팀은 공사현장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상쇄간섭 효과를 이용한 '노이즈캔슬링' 기술을 공사현장에 적용하는 아이디어와 기술 적용 방식을 제시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분석해 이를 상쇄하는 수준의 크기와 성격을 가진 소음을 발생시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NEWS

Thank You

아주와 함께한 스승, 감사합니다!

장기근속 교원들에 대한 시상식이 9월2일 열렸다. 30년 근속자 2명, 20년 근속자 9명, 10년 근속자 21명 총 32명이 대상이다. 장기근속 교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으며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30년 근속>

▲ **홍만표**(사이버보안학과)
▲ **모선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20년 근속>

▲ **오세창**(교통시스템공학과)
▲ **김성수**(소프트웨어학과)
▲ **조영종**(소프트웨어학과)
▲ **변광준**(소프트웨어학과)
▲ **조중열**(전자공학과)
▲ **박익모**(전자공학과)
▲ **이형천**(수학과)
▲ **조재형**(영어영문학과)
▲ **김병관**(사회학과)

<10년 근속>

▲ **이문구**(기계공학과)
▲ **양정삼**(산업공학과)
▲ **박재일**(산업공학과)
▲ **정명철**(산업공학과)
▲ **한지형**(건축학과)
▲ **정태선**(소프트웨어학과)
▲ **박상규**(생명과학과)
▲ **김도영**(경영학과)
▲ **강주영**(e-비즈니스학과)
▲ **김미현**(영어영문학과)
▲ **김경일**(심리학과)
▲ **노명우**(사회학과)
▲ **이왕휘**(정치외교학과)
▲ **최상돈**(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 **김상욱**(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 **안영환**(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 **장혜영**(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 **백윤기**(법학전문대학원)
▲ **윤성승**(법학전문대학원)
▲ **김주후**(교육대학원)
▲ **박미화**(교육대학원)

Brown Bag Meeting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은 김동연 총장이 재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했다. 매월 첫 번째·세 번째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격주로 진행된다. 대화의 주제는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장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방식이다. 매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을 받아 20명 정도의 재학생을 초대한다. '브라운 백 미팅'은 소수 인원이 자유롭게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보통 점심으로 제공되는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의 봉투가 갈색이라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DONATION

KEB하나은행 '아주 유쾌한 반란 기금' 5000만원 기부

KEB 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아주 유쾌한 반란' 기금으로 아주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9월22일 KEB하나은행과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 은행장, 정성철 KEB하나은행경기남부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아주 유쾌한 반란' 기금은 ▲AFTER YOU 프로그램 ▲파란학기제 등 아주대의 주요 프로그램들에 활용되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 은행장은 "김동연 총장과 아주대학교가 추진 중인 유쾌한 반란의 취지와 프로그램에 공감해 기부를 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김동연 총장은 KEB하나은행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 맞춰 학교를 방문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아주강좌 강연자로 나서 7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 일을 즐겨라! 내일의 변화를 즐겨라!>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DONATION

김수정 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김수정 장학 제4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10월25일 열렸다. 총 1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김수정 장학금은 아주대 동문 김중권(전자 73) 씨 부부가 지난 2015년 기부 약정한 3억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김 동문 부부는 림프암으로 세상을 떠난 외동딸 김수정 씨의 뜻을 기려 장학금을 기부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림프암 전공을 희망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왔다. 김 동문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고, 장학생 대표는 감사의 글을 낭독했다.

김중권 동문 부부는 "기부를 통해 많은 아들과 딸이 생겨 뿌듯하고 감사하다"며 "우리 학생들이 사회 곳곳에 진출해 학교와 사회의 든든한 나무 같은 이들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DONATION

이종철 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열려

이종철 장학 4기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이 10월19일 율곡관에서 열렸다. 총 11명의 학생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다.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43기 졸업생인 이종철 동성금속 대표가 직접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종철 대표는 아주대에 총 3억원의 장학금을 기부, 이는 매 학기 '이종철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신소재공학과, 의학과, 간호학과와 약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1명에게 100만원~25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종철 기부자는 장학생들에게 "여러분의 훌륭한 역량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라"며 "그리고 후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나눔의 기쁨'을 느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ThankYou Donor

"고마운 'AFTER YOU'에 감사의 'ME FIRST' 해야죠~"

공영란 재학생
불어불문학과 14학번

"학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리숙한 저에게 학업과 진로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랬듯 선배, 동기들과 앞으로 입학할 후배들도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대학시절 누릴 수 있는 여러 경험들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두려워말고 눈앞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인이 됩시다!"

공영란 학생은 외부에서 받은 장학금을 아주대학교에 <아주 유쾌한 반란 기금>으로 100만원 기탁했다. <아주 유쾌한 반란 기금>은 ▲AFTER YOU 프로그램 ▲파란학기제 등 아주대의 주요 프로그램들에 활용되고 있다.

*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실천프로그램 "AFTER YOU" 프로그램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Donors

아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illegible]

AU
2016
WINTER

대학을 졸업하고 열달을 놀았다. 수없이 원서를 썼고, 번번이 낙방했다.

함께 울고 웃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제 갈 길을 찾아가면서 불안감은 커졌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매일 밤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앞으로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나 자신이 무너져내리는 것만 같은 깊은 슬픔으로 번져갔다.

#'낭떠러지 앞에 선 기분'을 시험지에 적어내고 첫 직장에 합격했다.

내 밥을 스스로 벌며 '사람다움'은 확보했지만 매일의 일정 시간을 한 자리에

헌납하며 권태도 같이 커져갔다.

주말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손꼽고 빨간 날을 헤아리며 위안을 삼았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나'는 그 시간 속에 흩어져갔다.

시의적절한 마감을 위해 서울로 출퇴근하기를 며칠, 기차에 몸을 싣고

잠깐의 여유를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의 풍경을 누려본다. 그래, 쉼은

만만치 않다. 그래도 가끔은 여기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끽해보자. / 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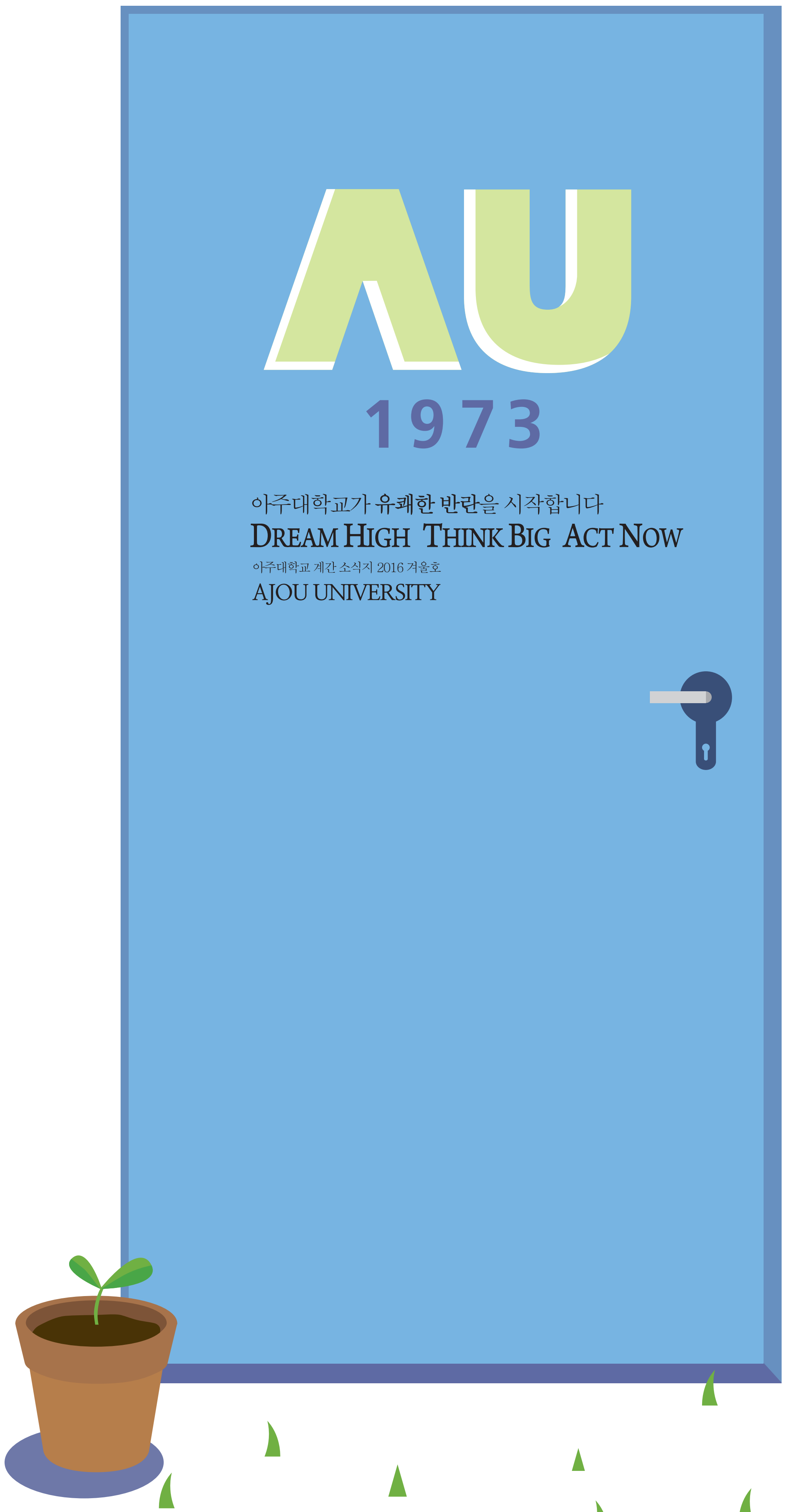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CREDITS

PUBLISHER	president	김동연
CHIEF EDITOR	brand strategy dept. moc. graduate school of public affairs visiting professor	남경호
EDITORS	brand strategy dept.	이솔 심경석
PHOTOGRAPHER	brand strategy dept. digital media_senior free-lancer	정우준 강민석 이상숙
ART	brand strategy dept. kkpd and partners co., ltd.	권지영 한혜령 심민경 윤성우 유상엽
PRINT MANAGER	alaska	장준우 지환섭
SUPERVISOR	brand strategy dept.	박승하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Copyright © 2016 Ajou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AJOUINSIGHT〉 이 간행물 내용중 상의 후 복제 및 전재를 환영합니다.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Tel.031-219-2114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16 12 01 02 RENEWAL Vol.6

AJOUINSIGHT.

<아주인사이트> 2016(4349) 겨울호. 전 '아주대학교사람들'과 함께 통권 18호.